

원주문화재단 아트 매거진

WART

summer 2026 VOL.12



원주문화재단 아트 매거진

WART

Wonju ART

‘와트(WART)’는 원주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역과 사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와트’는 원주시민들의 삶과 도시의 다양한 문화예술 이야기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지향합니다.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문화창구가 되겠습니다.



표지 사진_성황당

photo by 한유빈

2026. 6. 27. 신림 성황림

(재)원주문화재단

Wonju Cultural Foundation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은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주시 문화·예술 환경을 발전시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2644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향교길 77, 남산골문화센터 신명 4층

TEL 033. 760. 9843 / FAX 033. 763. 9631

홈페이지 www.wcf.or.kr / 원주문화정보 https://blog.naver.com/wcf_kr



발 행 처 (재)원주문화재단
편집총괄 (재)원주문화재단 문화홍보팀
기획·취재 2026 원주문화정보 시민기자단
디 자 인 이야기 담

‘WART’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원주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재)원주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

문화+ Culture

- 04 기대 반 걱정 반 나의 인생 첫 발레 관람기
김예정
- 07 무대에 진심인 끈들의 열정 무대
김주희
- 10 작가가 살아온 시간과 철학을 만나는 시간
김희영
- 14 아이들 웃음과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진 여름 주말
마츠모토 시즈카
- 17 대만 현대미술 집단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영향
조윤지
- 20 연극의 말들, 연극하는 말들을 믿는 일
장기영

WJ특공대 Life

- 26 도심과 자연을 잇는 원주 힐링 코스
김민경
- 29 해가 지고 나서야 시작되는 원주의 여름
한유빈

공간W Space

- 32 원주야 책 좋아하니?
신윤석
- 36 문학으로 미래를 여는 원주의 두 심장
안영민
- 40 사람과 시대를 기억한 작은 유물관
이원희
- 42 치악산 자락에서 천년의 숨결을 만나다
김응섭

예술in People

- 46 ‘바린이’ 묵혀둔 동경을 꺼내든 사람들
허윤주
- 49 우리들의 영원한 방울꽃 할아버지
장시우

이슈 and Issue

- 56 청소년이 발견한 원주의 가치, 지역의 미래를 열다
서연남
- 59 역사적 전환점, 원주 연극의 도약을 기대하며
주장석
- 61 원주! 옷칠의 성지이자 한국 칠(漆) 문화의 자존심
김동환

문화 + Culture



기대 반 걱정 반 나의 인생 첫 발레 관람기 _김예정

무대에 진심인 끈들의 열정 무대 _김주희

작가가 살아온 시간과 철학을 만나는 시간 _김희영

아이들 웃음과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진 여름 주말 _마츠모토 시즈카

대만 현대미술 집단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영향 _조윤지

연극의 말들, 연극하는 말들을 믿는 일 _장기영

문화+ :

원주문화재단 기획공연 부산발레시어터 '신데렐라' 리뷰

기대 반 걱정 반 나의 인생 첫 발레 관람기



#발레 #신데렐라 #부산발레시어터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 #치악예술관

원주에서 발레를 처음 봤습니다.

혹시 “발레는 어렵고, 멀리 서울까지 가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치악예술관에서 난생처음 발레를 관람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한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 남녀노소 모두가 무대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김예정

1

발레로 만나는 신데렐라, 원주에서 펼쳐지다

원주문화재단 2026 기획공연- 부산발레시어터 발레 '신데렐라'가 치악예술관 무대에 올랐습니다. 부산발레시어터는 2014년 설립된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 예술단체로, 창작 발레부터 클래식 전막 발레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한 부산 대표 민간 직업 발레단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 공연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기도 한 검증된 단체입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이기도 합니다.



발레로 보는 동화이야기 신데렐라. © 부산발레시어터 제공

2

공연장을 가득 채운 원주 시민들

이날 치악예술관은 발레를 처음 접하는 시민부터 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 관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관객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 공연 내내 객석 분위기가 무척 따뜻하고 활기 찼습니다. 발레라는 장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남녀노소 모두가 무대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

직접 보고 왔습니다 ‘나의 첫 발레 관람기’

공연을 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대사도 없는 발레를 어떻게 이해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각 막이 시작되기 전 샌드아트 영상과 함께 자막으로 줄거리 해설이 나왔습니다. 음악과 함께 모래 위에 그림이 펼쳐지며 이야기가 설명되는 방식인데, 아이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덕분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워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발레의 섬세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조명, 무대 효과까지 더해지니 눈을 땔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연 중 떠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무대에 집중해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책이나 영상이 아닌, 살아있는 무대 위의 신데렐라가 아이들 마음에 제대로 남은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인터미션(휴식 시간) 15분이 있어 화장실도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고, 가족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워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발레의 섬세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 김예정



각 막이 시작되기 전 샌드아트 영상과 함께 자막으로 줄거리 해설을 제공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 김예정

*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wcf.or.kr) 에서 다가오는 공연·전시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원주시민에게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서울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이 꼭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주에도 이렇게 좋은 공연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4

감독이 말하는 발레 '신데렐라'의 핵심 포인트

공연 감상 후 발레라는 언어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장 겸 예술감독 정성복 선생님께 직접 여쭙봤습니다.

“저희 콘셉트는 ‘발레로 보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발레는 대사가 없기 때문에 서곡 시간에 샌드아트 영상과 자막으로 각 막의 줄거리를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또 일반 클래식 발레보다 마임과 연기, 코믹한 장면도 있어 관객들이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감독님은 이 공연을 한마디로 ‘신데렐라의 선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착한 선택을 한 신데렐라. 그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교훈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원주에서 이런 공연을 더 만나고 싶다면?

원주에는 치악예술관 외에도 치악체육관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정말 아쉽습니다.

글·사진 김예정_원주문화정보 시민기자
사진 부산발레시어터 제공

문화+ :

2026 한여름밤의 쏘리 리뷰'



무대에 진심인 쏘리들의 열정 무대

#한여름밤의쏘리 #야외공연장 #댄싱공연장
#샘마루공원 #행구수변공원

‘2026년 한여름밤의 쏘리’이 5월 16일
기업도시 샘마루공원에서 그 첫 무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 예술가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연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원주에서 활동 중인 야외 공연이 가능한 공연예술단체로 합창, 버스킹, 댄스, 전통, 클래식,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가 함께 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론, 10대부터 80대까지 아우르는 동아리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의 매력 중 하나는 한 자리에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힙합과 발라드 등 귀에 익은 대중가요부터 댄스, 마술쇼, 전통음악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한소리국악예술단의 전통 국악 공연이 인상 깊었습니다. 10대들이 즐겨듣는 빠른 템포의 음악과 아이돌 음악이 음원 순위를 점유하는 시대에 잠시나마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는 묘한 매력과 전통의 미가 넘치는 공연이었습니다.

원주 행사장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해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비비걸스 & 비비로알의 무대도 반가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어린 친구들이 아이돌 음악에 맞춰 일명 칼군무를 선보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 6~7곡을 연이어 선보이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표정과 동작은 프로 아이돌 못지않았습니다. 그럼에도 MC와 짧은 인터뷰 (자기소개) 시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옆집 아이들과 다를 바 없어 더 정감이 갔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있는 저 소녀들 가운데 미래 원주를 빛낼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 응원하게 되는 무대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뮤지션, 투바이원프리와 한소리국악예술단. © 김주희

17일 댄싱공연장 야외소공연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일 때보다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 드림색 소폰앙상블의 연주는 풍성하고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달고나와 원주사랑하모앙상블은 7080 시대 음악으로 무더위에 지친 관객들의 마음에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원주문화재단 <1인치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을 키웠다는 달고나 팀은 “그 보답으로 재능의 끼를 맘껏 뽐낼 수 있는 공연 봉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해 마음이 더 달달해지며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랩터스의 마살아츠를 관람할 때는 입을 다물기 어려웠습니다. 마살아츠라는 이름은 들어 보았지만 관람은 처음이었는데, 인간의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화려함과 익스트림한 움직임을 극대화한 모습에 절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곤 했습니다. 특히 앙코르 공연에서는 다양한 덤블링을 선보여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2011년 8월 시청공원 앞 야외 공연장에서 첫선을 보인 후 15년간 이어진 역사를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꿈’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소리꾼, 재주꾼),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구경꾼)이라는 의미를 포괄한다고 합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로 시작된 행사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지나가다 마주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공연’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문화+ :

원주문화재단 기획전시 '동화가 자라나는 여름숲' 리뷰



작가가 살아온 시간과 철학을 만나는 시간

#여름숲 #조창이 #김중현
#장서원 #남산골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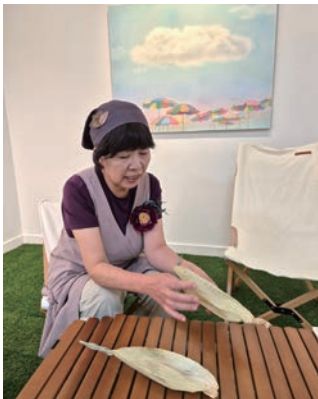
전시장을 찾을 때면 우리는 흔히 작품을 보러 간다고 생각한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어떤 기술이 담겨 있는지에 시선이 머문다. 그런데 이번에 남산골 문화센터 미담 전시실에서 열린 '동화가 자라나는 여름 숲' 전시는 조금 달랐다.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았지만,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작품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숲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와 풀, 따뜻한 조명과 소박한 오브제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세 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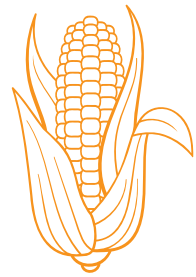


소박한 오브제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꾸며진 전시장. © 김희영

2026. 06. 09 - 28.
10:00~18:00
남산골문화센터 미담전시실



조창이 작가



옥수수 잎으로 인형을 만드는 조창이 작가의 작품들. © 김희영

“
제 작품의 소재인
옥수수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연물이라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

자연이 다시 예술이 되기까지, 조창이 작가의 시간

조창이 작가의 작품은 옥수수 잎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이다. 처음에는 그저 섬세하고 예쁜 공예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작품이 훨씬 깊게 다가왔다.

옥수수는 한철 작물이다. 수확이 끝나면 대부분 사라지거나 버려진다. 작가는 그 잎을 말리고 염색한 뒤 다시 수분을 공급하고 다림질하는 과정을 반복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분무기로 수분을 조절하며 손끝으로 하나하나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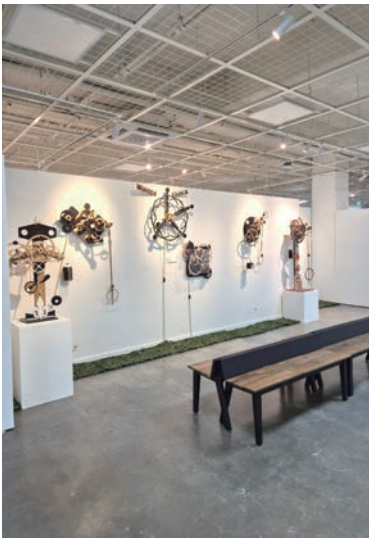
인터뷰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자연을 대하는 작가의 시선이었다.

작품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작가의 가치관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환경을

향한 애정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구와 공존하는 삶을 고민하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작품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조창이 작가는 처음부터 한복 인형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서양 인형 제작에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고유의 정서를 담은 민속 인형으로 작업의 방향을 넓혀 나갔다. 정해진 길이 없었기에 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번 전시에 함께 참여한 김종현 작가의 표현처럼, 조창이 작가는 마치 진흙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그의 열정과 진정성이 작품 곳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나게 될지,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버려진 합판에 생명을 불어넣는
김종현 작가의 작품들. © 김희영



김 종 현 작가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현 작가의 도전

김종현 작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울림을 주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친 뒤 시작한 목공예. 그는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토마타(Automata: 태엽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든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 예술 작품)’라는 이름조차 모르던 시절이었다. 그저 나무로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호기심 하나가 출발점이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김종현 작가의 이야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안 해봤으니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괜히 마음이 뜨끔해졌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이, 경험, 시간 등을 이유로 안 될 핑계부터 찾곤 한다. 하지만 김종현 작가는 22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그런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작품의 재료였다. 버려진 합판들이 작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군가에게는 쓸모를 다한 폐자재가 예술 작품이 되는 과정은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작가의 삶과도 닮아 있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시간이 결국 작품이 되었고, 그 진정성이 작품 곳곳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장 서 원 작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숲, 장서원 작가

장서원 작가는 이번 전시 공간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완성해냈다.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인터뷰 내내 자신의 이야기보다 함께 전시한 두 작가에 대한 존경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다. 장서원 작가가 가장 애정을 갖는 작품은 바로 '숲속 작업실'이다. 화려하거나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작가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의 작업실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작품 속 작업실은 장서원 작가 자신의 삶과 철학을 담아낸 자화상처럼 느껴졌다. 버려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모아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피워내는 모습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를 다한 재료들이 작가의 손길을 만나 새로운 가치를 얻듯, 작가 역시 끊임없는 상상력과 열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결국 작가의 '숲속 작업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예술가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다가왔다.



버려진 재료들을 하나하나 모아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피워내는 장서원 작가의 작품들. © 김희영

작품을 넘어 작가의 삶을 만나는 전시

전시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작품 앞에서 연신 질문을 쏟아내고, 움직이는 조형물의 작은 변화에도 환호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작품이 단순히 감상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연과 예술이 만난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놀이하듯 작품과 교감했고, 작가들이 전하고자 한 환경과 생명의 메시지 역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를 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작품의 완성도보다 작가들의 삶의 태도였다. 세 사람 모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이라서 두려웠지만 시작했고,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했고, 자신만

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세 명의 작가가 살아온 시간과 철학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바라본다. 완성된 작품만 보고 감탄한다. 하지만 그 작품 뒤에 담긴 고민과 열정,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감동을 만나게 된다.

‘동화가 자라나는 여름 숲’은 그런 전시였다.

예쁜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공간 이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라고 있는 숲. 전시장을 나서는 길에 나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좋아하는 일을 향해 걷는 사람은 결국 늦더라도 자신의 계절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글·사진 김희영_원주문화정보 시민기자

사진 원주문화재단 DB

문화+ :

'놀다·만들다·상상하다·함께하다' 2026 남산골 예술놀이터 리뷰

아이들 웃음과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진 여름 주말

#남산골문화센터 #진달래관 #예술놀이터 #꿈의오케스트라원주 #원주문화재단



진달래의 꽃말은 사랑의 기쁨, 순수함, 그리고 희망이다. 긴 겨울을 건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진달래처럼, 6월의 주말 남산골문화센터 진달래관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 꽃의 이름은 아이들의 웃음이었고, 부모들의 미소였으며, 가족의 사랑이었다.

원주문화재단이 마련한 '남산골 예술놀이터'는 지난해 원주아트갤러리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미술관 놀이터'의 두 번째 이야기다. 올해는 장소를 남산골문화센터 진달래관으로 옮겨 더욱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체험과 공연을 선보였다.

첫날 13일(토)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됐다. 한 타임 당 35개 팀, 12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티켓을 발급받아 입장했으며, 2시간 동안 다양한 예술 체험과 공연을 여유롭게 즐겼다. 예약 접수는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둘째 날인 14일(일)에는 공연 중심의 예술놀이터로 운영됐다.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도록 개방해 더 많은 시민이 진달래관을 찾았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와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주말의 여유를 만끽했다.



DJ 꿈나무가 신나는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 마츠모토 시즈카

행사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평소 넓고 비어 보였던 진달래관 체육관은 다양한 체험 부스와 놀이공간, 공연장으로 새롭게 변신해 있었다. 6개의 체험 부스가 원형으로 배치되고 중앙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공연이 시작되면 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무대로 변하며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예술놀이터라는 이름답게 체험 프로그램도 특별했다. 스트링 아트, 촉감 아트, 스탬핑 아트, 업사이클링 아트, 디지털 & 라이트 아트, 뷰티 아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낙서존과 라인 아트, 부채 만들기, 도형 놀이, 나무 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도 가까웠다. 공연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공간에 가까웠다. 아이들은 에어바운스에서 뛰어놀다가도 공연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무대로 시선을 돌렸다. 부모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아이들과 같은 감동을 나눴다.

첫째 날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의 연주와 어린이 DJ 공연, 그리고 뮤지컬 배우 홍지민의 갈라쇼가 펼쳐졌다. 특히 홍지민은 엄마로 살아가며 겪었던 이야기와 가족의 소중함을 진솔하게 전해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다.

“육아는 축복입니다. 육아는 축복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다.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울었던 부모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다.

공연 중 생일을 맞은 한 어린이가 무대로 초대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케이크와 꽃다발, 선물이 전달됐다. 예상치 못한 축하를 받은 아이는 환하게 웃었고, 곁에서 바라보던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살아온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일까? 그 모습은 많은 관객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만들었다.

둘째 날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가 무대를 이어갔다. 공연의 시작은 영화 ‘아이언맨 3’와 ‘어벤저스’ 테마곡이었다. 웅장하면서도 설레는 선율이 진달래관에 울려 퍼지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원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더해지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또래 친구들에게는 도전의 의미를, 관객들에게는 특별한 감동을 전해주는 순간이었다.

타자기를 악기처럼 사용하는 ‘타자기 협주곡(The Typewriter)’ 무대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윤도경 지휘자는 “타자기 협주곡은 실제 타자기를 활용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곡”이라며 “이번 무대에서 타자기를 연주한 단원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중인 타악기 전공 학생이다. 강원도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해 감동을 준 가수 홍지민은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 마츠모토 시즈카





창의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 마츠모토 시즈카



▲ 뮤지컬 배우 홍지민의 갈라쇼 현장 영상,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 단위들의 연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이 아닌 축제 현장에서 진행된 만큼 프로그램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그는 “연주회 형식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 누구나 알고 즐길 수 있는, 신나고 재미있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단위들은 오랜 시간 꾸준히 연습해 온 11곡의 연주를 정성껏 선보였다. 약기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 속에는 음악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객석에 앉아 있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은 무대 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의 연주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다. 어쩌면 이날의 공연은 어린 관객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작은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과 꿈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앙코르곡 ‘질풍가도’가 시작되자 공연장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신명나는 리듬과 힘찬 연주에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되어 음악을 즐겼다. 에너지 넘치는 선율 속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의 무대는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공연장 전체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다.

이번 남산골 예술놀이터는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 놀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였고, 부모들에게는 육아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쉼터였다.

한 공간 안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며 웃음을 꽃피웠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때로는 공연에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는 가족의 사랑이 함께했다.

예전에는 동네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어울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추억을 만들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날의 진달래관은 더욱 특별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부모들은 같은 공간에서 안심하며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볼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부모들은 휴대전화 속 사진을 들여다보며 행복한 추억을 담아냈다. 진달래관 곳곳에 남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듯했다.

진달래의 꽃말은 사랑의 기쁨이다. 그리고 이날 진달래관에 피어난 꽃은 진짜 꽃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꽃이 되었고, 부모의 따뜻한 눈빛이 꽃이 되었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응원이 꽃이 되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던 진달래관. 그곳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웠고, 부모들은 위로를 얻었으며, 가족들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담아 갔다. 초여름 햇살이 비치던 6월의 어느 날, 진달래관에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바로 사람의 꽃, 사랑의 꽃이었다.

글·사진 마츠모토 시즈카_원주문화정보 시민기자

문화+ :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기획전시 '요함(凹陷), 우리의 단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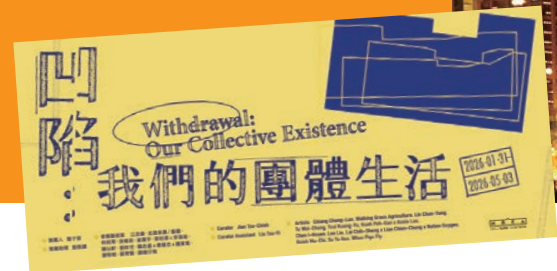
대만 현대미술 집단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영향

#타이베이현대미술관 #요함(凹陷): 우리의 단체 생활'

#MOCA #예술집단 #집단실천

원주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대만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MOCA: Museum of Contemporary art Taipei)과의 해외 교류를 통해 현지의 역동적인 예술 생태계를 확인하고 이를 재단의 문화정보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결실의 하나로, 2000년 이후 대만 현대미술의 근간이 된 '예술 집단'의 궤적을 쫓는 특별한 전시 소식을 원주문화 정보사업을 통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사람은 누구나 집단에 속했던 경험이 있으며, 그 기억과 경험은 보이지 않게 오늘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타이베이 현대미술관은 2026년 1월 31일부터 5월 3일까지 전시 '요함(凹陷): 우리의 단체 생활'을 개최했다. 미술 평론가 쟈즈제(簡子傑)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2000년 이후 대만 현대미술 집단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그 영향에 주목하며, 12개 팀 작가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집단적 경험을 조명했다.

전시는 '요함'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예술 집단이 빛나는 존재 상태를 가리킨다. 큐레이터 쟈즈제는 "우리가 동시대 미술을 볼 때 흔히 작품과 개인에 주목하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는 일정 기간 다양한 집단과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말한다. 시선을 개인에서 확장해 예술가가 타인과 함께하는 방식에 주목하면, 집단 경험이 작업의 선택과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대만 동시대 예술 집단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고자 했지만, 기획 방식과 전시 여건의 한계로 모든 집단을 아우르지는 못했다. 또한 참여 작가들 역시 특정 집단을 대표하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한때 창작을 지탱했지만, 점차 희미해져 가는 집단적 순간들을 되돌아본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만 타이베이 현대미술관장 직무대리 잔화츠(詹話字)는 "이번 전시는 단일한 기획이 아니라, 타이베이 현대미술관이 역사적 시점마다 대만 동시대 미술을 되짚어온 흐름을 잇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개관 20주년 기념전 이후, 이번에는 '예술 집단'을 중심 시각으로 삼았으며, '후팔(後八: 대만의 1980년대생 청년 서예가·예술가 그룹) 구성원이기도 한 큐레이터 쟈즈제를 초청해 참여자이자 관찰자의 시선으로 집단적 실천과 개인 창작의 관계를 새롭게 풀어냈다.

집단적 행동에서 출발한 집단적 실천

전시는 '국가산소'의 멤버 라이즈성(賴志盛)의 <이계당(二階堂)>으로 막을 열었다. 전시장 입구에는 공중에 매달려 늘어진 두 발이 보이며, 그 위에 대응하듯 사람들이 둘러앉는 찻상이 놓였다. 이 작품은 특정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실천을 이어가는 동시에, 우연한 만남과 새로운 놀이의 가능성에 대한 '국가산소'의 미학적 기대를 드러낸다.

라오젠중(廖建忠)의 <장면-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설치 과정에서 드릴 작업 중 실수로 수도관을 파손해 작품의 벽면 설치가 중단된 수밖에 없었던 돌발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제국 37식 유압 파쇄 해머>는 정교한 도장과 과장된 장식을 갖춘 유압 파쇄 해머를 통해 제도화, 표준화된 권력 작동의 역사를 은유했다.

'국가산소'의 공동 작업 <조(糙)>와 <Arther, 미실현된 계획 모형>은 초기 시기 현장성·행동·합의에 대한 실험 과정을 되짚으며, 집단적 의사결정과 개인적 선택 사이의 장력을 드러냈다.

'저우루차오농 예술단'은 지역의 지식과 생태 환경, 그리고 동시대 문화 사이의 관계를 꾸준히 탐구해 왔다. <거실에서 정물이 되는 순간>은 팀 특유의 협업적 창작 방식을 통해 전시 공간을 공유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풀어냈다.



① 라오젠중(廖建忠)의 <제국 37식 유압 파쇄 해머>
② '저우루차오농 예술단'의 <거실에서 정물이 되는 순간>. ©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제공



공간을 창작 실천의 기반으로

귀보옌(郭柏彥)×리페이위(李珮瑜)가 설치한 영상 작업은 '만사옥(萬事屋: 독특한 카페나 작업실)'이 공간 운영을 창작 실천으로 삼아온 배경에서 출발한다. 자가 제작 화폐, 음악적 개입, 그리고 공간적 실천을 통해 관계와 가치, 그리고 장소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구했다.

류추얼(劉秋兒)의 <두피와 도항계>는 가오송의 실험적 전시·공연 공간 '두피 문에 카페'를 15년간 운영해 온 경험을 토대로 했다. 문화적 혼종성을 상징하는 간판 이미지와 오랜 시간 '덧바름(塗抹)'을 개념으로 한 회화적 작업을 통해 정치권력에 관한 질문을 은밀히 드러낸다.

① ② 귀보옌(郭柏彥)×리페이위(李珮瑜)가 설치한 영상 작업 '교환(交換)'과 '만사옥(萬事屋: 독특한 카페나 작업실)'. ©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제공

집단적 경험을 서사와 기억으로 전환하다

천이쉬안(陳以軒)의 <위탁 제작(단체널 버전)>은 창작자이자 동시에 외주를 수행하는 참여자들을 초대해, 역할의 전환을 통해 영상 작업자와 외부와의 다양한 관계 형식을 다시 살펴보았다.

랑주자페이(讓豬仔飛)의 작품 <오랜 친구>는 가상의 구성원을 설정해 단체 구성원들의 기억과 정서를 엮어내고, 졸업 이후 각기 다른 길로 흩어진 이후에도 집단을 유지하려는 상태를 비추어냈다.

‘니거 영상사’ 멤버 수위셴(蘇育賢)의 <자신이 복화술사라고 꿈꾸는 복화술로 한바탕 잡꼬대를 했다>는 사소한 기억들을 꿈결 같은 장면으로 전환해, 평범한 일상에 상상의 공간을 펼쳐 보였다.

‘완더 보이’ 장중륜(江忠倫)의 <온유향: 형제>는 가족생활의 기억에서 출발해, 동생과 함께 이중 목제 침대를 모험의 배로 상상하던 공동의 기억을 다시 풀어냈다.

집단적 경험이 개인의 창작 언어로 내면화될 때

세무치(謝牧岐)가 선보인 9점의 작품은 동시대 대만 문화 속에서 회화의 역할과 그 재현 방식을 탐구했다. 그중 <사인볼>과 <오목해진 사인볼>은 각각 ‘미래사’ 그룹전에 참석한 관객과 본 전시 참여 작가들의 서명을 화면 위에 남기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집단, 현존과 참여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다.

최광우의 <행복 맹구역>은 대학 시절 ‘후팔(後八)’이라는 모임에서의 공동생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보

며 간식을 먹고 창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장비를 잘못 챙겼음에도 결국 작품을 완성해 내던 순간들처럼, 이러한 느슨하고 즉흥적인 집단 경험이 오늘의 자신을 형성했다”라고 설명한다.

린춘용(林純用)의 <향유고래 골격>은 그가 속한 그룹 ‘어자객(魚刺客)’이 대만의 해양 문화와 미학에 주목해 온 데서 출발한다. 좌초된 향유고래의 생명 궤적을 재현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게 했다.

투웨이정(涂維政)의 <유적 화석-거인 스키너 1호>투웨이정(涂維政)의 <유적 화석-거인 스키너 1호>는 ‘한투서(悍圖社)’ 특유의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시각적 기호 표현을 이어간다. 길이 5m에 달하는 거대한 골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장치가 삽입되어 있으며, 우화와 대만의 민간 전설을 바탕으로, 가상의 고고학적 형식을 통해 역사·과학적 상상력·동시대적 현상을 콜라주 하듯 결합했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문화적 확장

이번에 소개한 전시는 예술가가 개인으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집단 안에서 나누었던 뜨거운 교류와 경험이 어떻게 한 개인의 창작 언어로 내면화되는지를 심도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지난해 타이베이 현대미술관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국제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위치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타이베이와의 지속적인 문화 협력을 통해 원주의 문화 예술이 세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지역 사회에 꾸준히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글·사진 대만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제공

번역 조윤지(원주시 명예통역관)



① 투웨이정(涂維政)의 <유적 화석-거인 스키너 1호> ② 린춘용(林純用)의 <향유고래 골격> ©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제공

문화+ :

이양구 작가 <잔류시민>, <통로> 함께 보기

연극의 말들, 연극하는 말들을 믿는 일

#이양구 #통로 #잔류시민 #연우무대 #앤드씨어터



<잔류시민> 공연 정보

- 작: 이양구
- 연출: 안경모
- 제작: 연우무대
- 장소: 대학로극장 퀴드
- 일시: 2026.6.6.~14.

<통로> 공연 정보

- 작: 이양구
- 연출: 전윤희
- 제작: 앤드씨어터
- 장소: 강화도 없는극장
- 일시: 2026.5.29.~31.

희곡은 대단히 입말 중심적 문학이다. 텍스트 바깥의 독자(관객)가 누구로 상정되었느냐에 따라 텍스트 안의 인물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비교했던 제임스 우드의 분석을 빌려서 희곡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자. 우드는 구약성서의 다윗,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도스토옙스키의 라스콜리니코프 곧 성서, 연극, 소설을 비교하며 '인물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인물이 그려지는 방식이 달라짐을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다윗의 이야기는 '거의 전

적으로 공적인 것', 맥베스의 이야기는 '공개된 사생활', 라스콜리니코프의 이야기는 '꼼꼼히 점검된 사생활에 관한 것'이 된다.¹⁾

우드는 특히 다윗과 맥베스가 "행동하는 자들"이었음을 지적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들에 비하여 "부자연스럽게 연극적이거나,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꾸민 듯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는 이들(독자)은 "(라스콜

1) 다윗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에서 사생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의 이야기가 서사로만 구성되며 그 내면은 결코 드러나지 않게 된다. 맥베스는 그를 보는 것이 "신이라이보다는 우리 곧 관객"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독백으로, 맥베스 부부의 끔찍한 사생활을 관객이 엿들도록 설정된다. 한편, 라스콜리니코프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 곧 독자"이고, 이것이 맥베스를 보여주는 극장과 다른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임스 우드, 『소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설준규·설연지 옮김, 창비, 2026, 147~156쪽.

리니코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라스폴리니코프는 독자들에게 행동하지 않고도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자아를 드러내 보여야²⁾ 한다. 맥베스는 행동하는 자이긴 하지만 특히 그 행동이 ‘말(대사)으로써 드러난다’는 점에 집중해보자.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맥베스는 말로써 자신과 주변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드러내기도 한다.³⁾

이렇듯 연극에서 인물의 말은 관객에게는 보일 수 없는 사실마저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배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재에서 ‘말’은 그리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그리 진실한 것이지만도 않다. 따라서 내뱉어진 말을 전적으로 믿는 일, 혹은 그것으로써 진실을 파악했다고 보는 시선은 현실에서는 순진무구한 일이 된다. 그러나 연극이라는 픽션(fiction)은 말의 쓸모를 좀 더 믿어보게 한다. 말이 아니면 전해지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표방함으로써 말이다. 최근 발표된 이양구 작가의 신작 <통로>와 <잔류시민>을 함께 다루며 연극 안의 말, 혹은 연극적인 말들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1. ‘없었던’ 말들은 어떻게 상상될 수 있는가

<잔류시민>은 1950년 한국전쟁 중 서울 수복 이후 이뤄졌던 ‘부역자 재판’을 다룬다. 개전 직후 서울을 떠났다가 돌아온 정부는 인민군 치하에 있던 서울 내 잔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부역범 색출과 검거를 집행한 바 있는데 이 부역자 재판을 담당했던 단독 판사의 고민을 극적으로 다듬어내는 것이 이 서사의 골자이다. 특히 이 작품은 유병진 판사의 회고록 『재판관의 고민』(1952)을 바탕으로 김병호(이종무 분)라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중심 인물로 삼고 있다.

병호는 피난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온 후 이 부역자 재판에서 판결을 고심하며 적용법령에 대해 회의하는 인물이다. 그는 개전 직후 발령된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에 의거해 재판 절차가 졸속으로, 그리고 과도한 처벌 판결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겨냥한다. 그는 ‘실정법의 적용’을 논리적 거점 삼아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처벌 방침을 따르는 대신, 이러한 “법의 남용”들을 문제시하는 성격, 그리고 아내 수인(황은후 분)과 첫째 정욱(황규찬 분)과 갓난 둘째 아이를 서울에 두고 피난을 떠나왔던 상황 등에 의하여 자신이 담당할 부역자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들을 내린다.

이 극은 어느 양심적인 재판관의 고뇌만을 초점화하지 않는다. 작가가 “‘잔류시민’들의 시선을 또 하나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동시대와 법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을 반영⁴⁾” 하였다고 직접 말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연극에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질 때조차 최후 진술을 하지 않는 이들이 여러 차례 조명되었다. 삶의 끝자락, 자기를 변호할 유일하고도 마지막 발언권이 주어짐에도 이를 포기하는 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픽션이 자기 자리에서/로써 해야 할 일은 ‘서발턴(Subaltern)들에게도 목소리가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식의 주제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이미’ 담론과 이론들이 해온 일이다), ‘그 소리는 어떻게/왜 침잠되었을까’, ‘침잠된 소리는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것일 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서발턴에 대한 복화술은 좌파 지식인들의 상투적 수단이자 밀천⁵⁾”이라는 스피박의 경고를 떠올리는 일이다. 즉 이 픽션으로써 재구성한 소리가 결코 ‘지워진 목소리 그 자체’인 것처럼 이 표상의 사실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래야 우리에게 픽션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⁶⁾

2) ‘내포’ 또한 독자의 해석 과정에 유의미한 의미를 남길 만큼의 은폐 혹은 암시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드러내 보이다’라는 술어로 포괄하여 사용한다.

3) <맥베스>에 드러난 ‘말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맥검은 맥더프에게 자신의 추악한 탐욕을 말하고, 맥더프는 이 말에 절망하는 말을 내뱉는다. 맥검은 이로써 맥더프의 진의를 짐작했다며 자신이 앞서 발화한 말이 거짓말임을, 그리하여 자신의 진짜 말이 아니었음을 말로써 밝혀내고, 더욱이 앞으로는 맥더프를 신뢰할 것을 공표한다. 입말이 꼭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곡에서 이 말들은 인물의 성격을 창출하고, 서사를 전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마녀들은 예언으로써 이 서사의 발단을 주도하고, 전쟁 상황은 굳이 무대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 등장인물들의 전언으로 가능 가능해진다. 또한 인물 각각의 뒤틀린 욕망은 방백과 독백으로써 표현된다. 장기영, 「말을 지시하는 말들의 무대」, 『원주문화정보』, 원주문화재단, 2024-07-01(https://blog.naver.com/wcf_kr/22349718652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검색일: 2026-07-22).

4) 이양구, 「작가의 말: ‘잔류시민’의 시선으로 그린 부역자 재판」, 『잔류시민』, 지만지드라마, 2026, 128쪽.

5)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로절린드 C. 모리스 역음, 태혜숙 옮김, 그린비, 2013, 58쪽.

6) 스피박은 이미 결론을 내렸었다.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 “서발턴들을 재현(대표)하면서 자신들을 투명한 존재로 재현”(스피박, 앞의 글, 60쪽)하는 에피스테메와





연극 <잔류시민> 공연 사진. © 연우무대 제공

막이 오르면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며 판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서기'(이수진 분)가 말을 시작한다. 그는 병호를 중심으로 부역자 재판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바라보는 이로서 사실상 이 극적 서사의 내레이터라고 볼 수 있다. 극이 시작되면 병호는 서기와 대화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아무 말 없이 인사하고 나가던 모습"을 곱씹는다.⁷⁾ 이에 대한 답변을 하려는 듯 희곡은 '최후 진술을 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려낸다.

먼저, 수인은 자신을 피고인으로 삼은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직후 여러 차례 주어진 최후 진술 기회에 "충격을 받아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를 반복하다가 끝내 그에 준하는 발언을 한다.

(가)

강: 피고인. 최후 진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면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수인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중략)

수인: 저는, 우린... 여러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원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던 우리들 역시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이 정말로... 정말이라고는 믿기지않습니다. (더 말을 잊지 못한다.) (55~56쪽, 강조-인용자)

수인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지만, 이후 아들 정욱이 받은 판결에 대한 의문을 남편에게 제기한다. 정욱은 병호가 피난을 떠난 후 내무서에서 일하며 그곳 직원들이 묻는 것에 대답했던 적이 있고 그것으로 검사에게 기소당한 바 있다. 병호의 의견을 비롯하여 정욱에 대한 판결의 논리에서 정욱의 행위는 '밀고'이지만 그것과 "인민군의 범죄 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은 내무서 직원들이 묻는 것에 대답한 것 자체가 '밀고'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정욱에 대한 판결의 '주문'은 그의 행위가 무죄라고 결론지을 테지만, 그 주문의 '이유'에서 정욱이 행한 그 행위는 '밀고'임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다. 그리고 이 극은 이 주문-이유의 논리들이 결국 어떤 일들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빠뜨리지 않고 보여준다. 실제 법적 판결은 이렇게 끝났지만, 정욱의 내면 안에서는 자기 심문과 재판이 막 시작된 것이다.⁸⁾



그것의 조작자들에 의해서 말이다. '서발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며 복화술하는 재현은 불가능해야 한다. 대신 우리에겐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와 함께 '서발턴을 말할 수 있는가'를 동시에 묻게 만드는 픽션이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가)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아무 말도 없었던 걸까? 단 한 번의 심리 공판으로 사형이 선고됐는데. 법정을 나서면 불복의 기회도 없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왜 우는 사람 하나 없었던 걸까?" 이양구, 『잔류시민』, 지만지드라마, 2026, 7쪽. 이후 극중 대사나 지문의 인용은 이 책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8) 5장에서 죽은 승호(정원조 분)가 정욱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한다. 정욱이 승호가 자신 앞에 나타난 이유를 묻자 "니가 나를 불렀"으며 "재판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이에 정욱이 "재판은 끝났어요"라고 말하자 승호는 다음처럼 답한다. "알잖아. 니 속에선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



한편, 극의 결말은 또 다른 부역자 재판 장면이다. 병호가 15명의 피고인들에게 판결하기 전 최후 진술할 기회를 주지만 피고인들 중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장면이 연출된다. 그러다 한 여성 피고인이 최후 진술 대신 아래와 같은 요청을 한다.

(나)

피고인: 저는 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단니, 사형을 받더라도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우릴 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정부에 대한 기대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편과 가족이 모두 죽어서 여기서 풀려나더라도 어차피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에 얹힌 이 아이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병호: 말씀하세요.

피고인: 이 아이도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략) 이런 세상에 이 아이를 차마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116~117쪽, 강조-인용자)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에 반박하지 않고 수긍한다. 그는 자신이 더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죽은 후 ‘부역자의 아이’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아이까지도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한다. 판사의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최후 진술’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을 향해 검사가 규정한 그 죄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자기 변호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극은 ‘최후 진술 없음’을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대신 최후 진술이 아닌 새로 발화되었을 법한 말들이 무엇일지를 상상한다.

(가)의 수인 그리고 (나)의 피고인의 말들로서, 즉 이 ‘최후 진술 아닌 말’ 들로서 우리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일이 곧 자신과 자신의 신변을 둘러싼 모든 일들에 대한 포기, 즉 자신에게 내려진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그 어떠한 발버둥조차 하지 않는 일일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지 가능한 영역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가)의 수인은 최후 진술 없음으로 종결을 종용하는 이 재판의 유속에 절대 ‘고덕이지 않는다’. (나)의 피고인은 이 재판을 둘러싼 논리적 체계 안에서 자신의 논리는 무용한 것임을 전제하며, 이 논리 안에서 파생될 또 다



연극 <통로> 공연 사진 © 김술, 앤드씨어터 제공

른 비극(부역자 자녀에 대한 낙인)을 막고자 더 극단적인 폭력을 선택한다(그에게는 그 폭력이 덜 폭력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일 테다). 이들의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혹은 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법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해서도 안 된다”(56쪽)는 원리가 전복된 상황에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 무용해 보이는 발언들은, 이미 짜여진 판 속의 자신의 말이 퍼줄 조각(최후 진술)이 되게끔 두지 않으려는 의지 혹은 이미 예정된 결론 속의 무력한 개인의 정동을 ‘입말’로써 표현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극은 이 ‘없었던’ 말들, 즉 당시의 에피스테메 혹은 제도에 의하여 구멍이 되었을 그 말들을 ‘사실임’을 표방하지 않으며 극적으로 구상해낸다.

2. 분란한 실재를 표상하는 봉합되지 않는 말들

연극 <통로>는 한 학생의 흡연권(흡연자가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을 위해 학교와 이 학교가 위치한 마을 사이에 만든 ‘통로’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 간 갈등을 다루는 작품이다. 극 안에서 인물들이 다루는 사안은 계속 변해간다. 처음에는 학생의 흡연권을 실현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화두가 되어 학교와 마을 사이에 학교도 마을도 아닌 공간(통로)을 만들어 그의 흡연권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그렇게 학교와 마을 사이에는 설치물이 세워지고 그 사이 ‘통로’라 불리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이 본인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설치물을 철거하겠다고 주장하는 이가 등장한다. 통로 설치 및 폐쇄 문제의 이면에는 사실상 마을 내 대안학교 설립 반대자들의 의견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흡연권 문제는 땅 소유권 문제, 측량의 정확성 문제, 합의 과정의 민주적 절차 문제, 재물손괴 사건의 범인 색출 문제 등으로 이어진다.

<통로>는 대사로써 서사가 전개되는 희곡이다. 이 말인즉슨 인물들의 대화는 이미 있었던 일들을 다시 서술하는 역할로만 한정되지도 않고, 혹은 대화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는 역할로만 기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다. 인물들의 입말은 정말로 이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의 시공간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극이 위치한 시공간이 논증적이고도 민주적인 언어를 표방하는 특정한 시공간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극중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며 실험들을 하는 대안학교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안의 규칙과 방침들은 얼마든 수정 가능한 것으로 설정된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극의 주제는 청소년의 흡연권과 이 의제를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결정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인 듯하다. 그러나 앞서 말하였듯 실상 극 안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사안은 계속 변해간다. 즉 논제가 이동해가면서 서사가 전개되는 식이다. 극속 모든 인물은 자신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고, 논제가 변해가며 그 주장의 주체는 다르게 설정된다. 이에 따라 극 전반부에서는 대화 구도가 학생(최현조 분)-담임(강윤민지 분)-이장(민재원 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후반부에서는 친구(김진솔 분), 측량사(변준섭 분), 마을사람(다은 분)으로까지 확장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극 속 모든 논제는 일단락됨과 동시에 다른 논제를 파생함으로써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대단원에서는 이 흐름을 열추 마무리하는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자가 등장한다. 이 학교로 전학온 학생의 학부모(채운 분)이다. “구성원에 변동이 생겼으면 새로 들어온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며 등장한 그는 그간 여러 인물들이 얹치락뒤치락하며 봉합해가던 논점을 리셋시킨다. 당최 어느 사안도 쉽게 결론 내려질 수가 없는 것이다.

결론은커녕 최종변론조차 거처지지 않은 채 끝없이 자가증식 중인 듯한 이 사안들은, 사실 논자뿐 아니라 이 논쟁을 바라보는 관객들에게도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 절망감은 ‘사안’에만 집중했을 때 가능한 감정이 아닐까. 즉 이 많고 많은 말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 합리적인 결과인가’ ‘그것에 다다르기 위한 민주적 절차는 무엇인가’로만 수렴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 극의 수다한 말들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장: 그게 논리의 함정이죠. 전제가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언제나 그걸 알 수도 없는 거고.

담임: 그게 진짜 전제 아닐까요? 실제가 어떤지 전부 알 순 없잖아요. 우린 사람이니까.⁹⁾

극중 인물들이 발화하는 너무나도 ‘쑹쑹했던’ 말들은 위의 대화를 의식하며 다음을 지적한다. “실제가 어떤지 전부 알 순 없는” 채로 살아가면서, 마치 실제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며 그것을 어떤 논리의 전제로 삼는 것 말이다. 이 극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논제들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참 “별 것도 아닌 일”처럼 보인다.

담임: 저도 별로. 어렵네요. 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장: …….

담임: 별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장: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사실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치로 따지면 큰일이 맞지만요.

담임: 이치대로 살만한 형편이 못 되는 거지요. 실상은. (31쪽)

실재는 이치대로 이루어지는 평평한 곳이 아니고, 그래서 이치는 끊임없이 변모한다. 이렇듯 어지러운 말들로서 실재의 분란함을 보여주는(mimésis) 일은 마치 관객에게 실존적 피로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그게 다일까. 이 산만한 실상(實狀)을 적당한 봉합으로써 실상(實像)이라며 제시하는 허구야말로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독자에게 (철학적 의미에서) 사물의 진실성을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예술적 의미에서) 그것들을 상상해달라고 요구”¹⁰⁾ 하는 픽션으로서의 말하기라면 꽤나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글 장기영_원주문화정보 전문필진(공연예술평론가)

사진 제공 연우무대·김솔·앤드씨어터

9) 이양구, 연극 <통로> 대본, 2026, 16쪽. 이후 극중 대사나 지문의 인용은 이 대본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0) 제임스 우드, 위의 책, 226~251쪽.



WJ특공대+ Life



도심과 자연을 잇는 원주 힐링 코스 _김민경
해가 지고 나서야 시작되는 원주의 여름 _한유빈

WJ특공대 :

걷기 좋은 원주 산책길 3선(選)

도심과 자연을 잇는 원주 힐링 코스

#혁신도시둘레길 #원주천 #치악산바람길숲
#단구공원 #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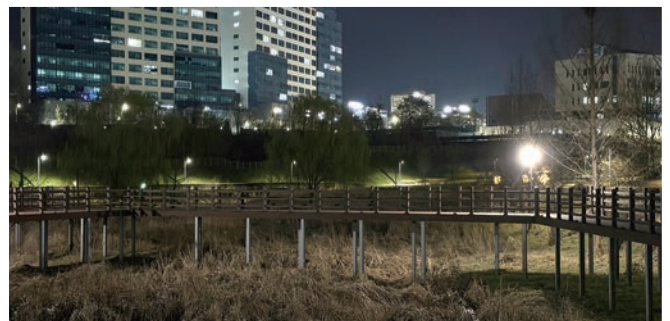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5월은
바깥 활동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산책길이 있다.
원주에서 가볍게 걸으며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세 곳을 소개한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혁신도시 둘레길(반곡동)

먼저, 혁신도시 둘레길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책 코스다. 접근성이 뛰어나 부담 없이 찾기 좋다.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건물과 고층 아파트로 채워진 도심 분위기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특히 5월에는 짙어진 녹음이 길을 따라 이어지며, 산책하는 내내 상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들과 러닝크루, 혁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총 5개 코스로 각 코스마다 거리와 소요 시간이 달라 개인의 체력이나 일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1코스는 분수공연장(두물수변공원)에서 미래삼거리까지 10.2km 구간, 2코스는 분수공연장을 출발해 한가터송어회,



수변데크를 거쳐 다시 분수공연장으로 돌아오는 7.3km 구간이다. 3코스는 오리현천교를 시작으로 배울생태로, 봉두공원입구를 거쳐 다시 오리현천교로 돌아오는 3.3km, 4코스는 분수공연장에서 한가터송어회, 삼거리 갈림길을 지나 삼생교 앞까지 이어지는 약 5.5km, 5코스는 분수공연장에서 서리실생태로, 수변데크를 지나 다시 분수공연장으로 돌아오는 3.56km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 혁신도시 둘레길은 가벼운 산책부터 비교적 긴 거리의 운동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산책과 휴식을 동시에’

우산천 산책로와 치악산 바람길숲(우산동)



우산동 주변 산책로는 비교적 평탄하게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걸을 수 있다. © 김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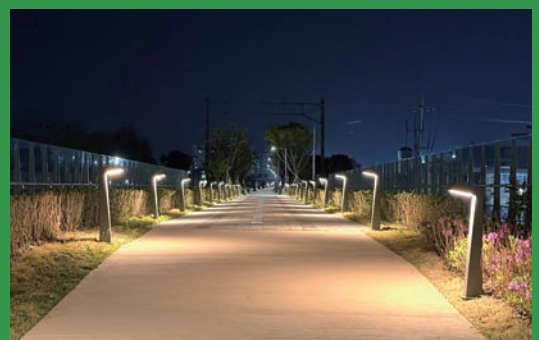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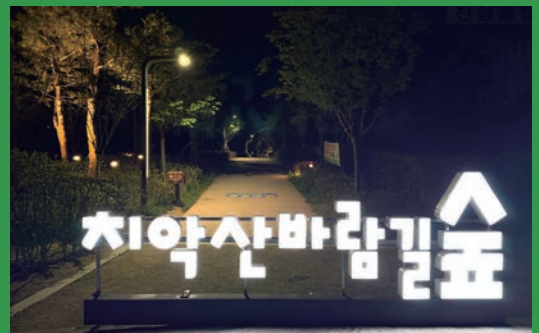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우산천 일대와 치악산 바람길숲이다. 이 구간은 도심 하천과 숲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코스로, 산책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산천 주변 산책로는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으며,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풍경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특히 5월에는 주변 나무와 풀들이 푸르게 올라와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우산천과 연결된 치악산 바람길숲은 기존 철도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산책길로, 자연과 도시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한라비발디 아파트 2차 후문을 출발해 반곡역까지 11.3km를 걷다 보면 숲길 특유의 여유로움과 함께 과거 철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구간마다 서로 다른 테마가 적용되어 있어 단순한 산책을 넘어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비교적 긴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짧은 산책부터 여유로운 장거리 걷기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처럼 우산천과 치악산 바람길숲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적합하다.



치악산 바람길숲. 철길을 활용해 조성한 구간이다. © 김민경



‘부담 없는 산책코스’

단구공원 둘레길(단구동)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단구공원 둘레길이다. 단구공원은 도심 속에서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형 공원이다. 접근성이 뛰어나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으며, 비교적 한적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갖추고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산책 코스는 공원 입구를 중심으로 순환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주요 동선은 공원 입구에서 시작해 완만한 오르막길을 따라 숲길 구간을 지나고, 정상부 인근 쉼터를 거쳐 다시 완만한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형태다. 전체 코스는 약 2~3km 내외로,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부담 없는 거리다.

또한 코스 중간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전



단구공원 둘레길. © 김민경

망대도 있어 가벼운 운동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인근에는 원주 아트 갤러리와 임윤지당 선양관 등 문화시설도 있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단구공원 둘레길은 격한 운동보다는 여유로운 산책과 일상의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적합한 공간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처럼 원주 곳곳에는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산책길이 마련되어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주의 매력은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공간들이 풍부하다는 것은 원주가 가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글·사진 김민경_원주문화정보 시민기자

WJ특공대 :

무더위를 피해 공원과 산책로로 나온 시민들이 보내는 여름밤

해가 지고 나서야 시작되는

원주의 여름



#원주 #여름밤 #런닝 #버스킹 #가족

하루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저녁 무렵, 원주의 공원과 산책로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한낮의 뜨거운 별 아래 한산했던 길은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나서야 사람들의 발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가볍게 달리는 이의 숨소리,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소리, 반려견 목줄을 쥔 손끝의 여유,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여름밤을 나는 풍경은 저마다의 색깔로 다르다. 무더위에 낮을 내어준 시민들이 저녁을 되찾으면서, 원주의 여름은 해가 진 뒤에야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휴식 공간

행구수변공원도 저녁이 되면 다른 얼굴을 한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가족의 모습이 공원 곳곳에 스며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이들도 눈에 띄게 많다. 한낮의 뜨거운 바닥과 강한 별이 걸음을 허락하지 않는 탓에 저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산책 시간이 된다.

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동안, 보호자들은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거나 함께 놀며 걸을 지킨다. 특별한 행사도, 정해진 프로그램도 없지만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저녁을 보내고 있다.

낮에는 아이와 밖에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더워서 주로 해가 진 다음 공원을 찾다는 한 시민은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아이가 뛰어놀 수 있고, 어른들도 산책하면서 바람을 쉴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면서 “집에만 있으면 아이도 답답해하는데, 저녁에 잠깐이라도 나오면 가족 모두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좋다. 그저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현관문을 나서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잔디밭 위로 흩어지고, 어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느려진다. 낮 동안의 더위와 답답함이 저녁 바람 한 줄기에 풀려나가는 사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작은 심표가 공원

한켠에 내려앉는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이 가족에게 여름밤의 공원은 계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피서지인 셈이다.

함께 만드는 원주의 여름밤

원주 종합운동장과 단구동 근린공원의 저녁은 조금 다른 활기로 채워진다. 홀로 운동장을 도는 이들 사이로, 여럿이 발을 맞춰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면 운동복과 러닝화를 갖춰 입은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가벼운 인사와 함께 몸을 푸는 스트레칭이 시작된다.

준비운동을 마친 이들은 저마다의 속도에 맞춰 무리를 나누어 운동장 주변을 달린다. 기록에 도전하듯 빠르게 치고 나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발을 맞추는 이들도 있다. 뒤편 이를 기다려주고 서로의 속도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경쟁보다는 함께 달리는 즐거움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달리기는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그 걸음을 혼자 오래 이어가기란 쉽지 않다. 러닝 크루의 참가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달리는 것이 꾸준함을 지켜주는 힘인 것 같다.

러닝크루 ‘에프터 런’에서 활동 중인 A 씨는 “혼자 뛰면 힘들 때 금방 멈추게 되지만 크루에 참여한 뒤에는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과 만나기



①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는 러닝 크루 ② 행구수변공원에서 원주 생활문화예술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 한유빈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라며 “비 때문에 며칠 쉬었는데 오늘 다시 함께 달리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A 씨는 또 “함께 달리는 사람들의 응원이 운동을 지속하는 힘이 된다”라고도 했다. “혼자 달리면 기록이나 거리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함께 달리면 서로의 상태를 살피고 응원하게 된다”라는 그는 “힘들 때 옆에서 조금만 더 가보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라고 크루 활동의 장점을 소개했다.

러닝크루 WBC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B 씨는 기록보다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달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뒤쳐질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속도와 경험에 맞춰 그룹을 나누기 때문에 초보자도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여름에는 해가 진 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아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물을 자주 마시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달리기를 마친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참가자들은 가볍게 몸을 풀며 그날의 달리기 기록과 컨디션을 이야기했고, 다음 운동 일정을 확인하며 여름밤의 러닝을 마무리했다.

원주 종합운동장 주변의 여름밤은 달리기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인근 댄싱공연장에서는 작은 버스킹 공연이 열려 시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음악을 감상했고, 농구장에서는 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경기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산책과 러닝, 음악과 농구가 한 공간에 어우러지며 이 일대는 시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밤을 보내는 생활문화 공간이 되고 있었다.

긴 장마가 지나간 뒤, 다시 시작된 원주의 여름밤

앞선 인터뷰 이후 원주에는 긴 장마가 찾아왔다. 연이어 내리는 비로 공원과 운동장을 찾던 시민들의 발걸도 잠시 멈췄다. 산책로와 운동장은 빗소리만 남긴 채 한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장마가 끝난 뒤 앞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장소를 다시 찾았다. 같은 장소였지만 풍경은 이전보다 한층 활기차게 달라져 있었다.

행구수변공원에서는 생활문화예술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작은 무대에서 공연이 이어지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음악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은 무대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고,



사이 흠뻑소를 보기 위해 원주종합운동장 일대에 모인 관람객들. © 한유빈

시민들은 가까운 공원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었다.

원주종합체육관 일대에서는 사이의 ‘흠뻑소’가 열렸다. 파란색 옷을 입은 관람객들이 공연장 주변을 가득 채웠고, 공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축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설렘과 열기가 거리까지 번져갔다.

앞선 취재에서 러닝 크루와 시민들이 조용히 걷고 달리던 공간은 이날 수많은 관람객이 여름을 즐기는 축제의 장소로 변해 있었다.

긴 장마는 원주의 여름밤을 잠시 멈춰 세웠지만, 계절의 시간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다. 비가 그친 자리에는 다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조용했던 공원에는 음악이, 비어 있던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이 채워졌다.

처음 만난 원주의 여름밤이 산책과 달리기로 이어지는 소박한 일상이었다면, 장마 뒤 다시 만난 밤은 공연과 축제의 열기로 더욱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작은 무대 앞에서 음악을 들었고,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물을 맞으며 여름을 즐겼다.

비가 남기고 간 습기 위로 공원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시민들의 웃음과 음악이 여름밤의 빈자리를 채웠다. 그렇게 원주의 여름은 빗물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원주의 여름. 그 밤은 화려한 불빛보다 그곳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더 오래 빛나고 있었다.

글·사진 한유빈_원주문화정보 시민기자

공간W Space



원주야 책 좋아하니? _신윤석

문학으로 미래를 여는 원주의 두 심장 _안영민

사람과 시대를 기억한 작은 유물관 _이원희

치악산 자락에서 천년의 숨결을 만나다 _김응섭

공간 W :

책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원주 독립 서점

원주야, 책 좋아하니?

#독립서점 #책빵소 #생각의뜰채 #시흥서가 #이서책방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텍스트 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책을 의미하는 ‘텍스트’에 멋있다는 의미의 ‘힙하다’가 합쳐진 말이다.”

-국민일보, 2024년 8월

21일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0~20대의 **소설·시·희곡 분야 도서 구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 늘었다**. 2024년과 2025년 전체도 각각 전년 대비 38.1%, 15.3%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2026년 4월

종이책이 소멸의 우려를 딛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디지털 세대인 10·20세대에서 말이죠. 휘청거리던 출판업계의 화려한 부흥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텍스트 힙(Text Hip)’이었습니다.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점으로 독서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고, 그 여파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이책을 읽고 문장을 공유하는 행위가 일종의 유행으로 확산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는 “젊은 세대의 독서는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고 타인과 교류하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

았다.”라고 평하며 ‘텍스트 힙’을 일시적 흐름이 아닌 라이프스타일로 바라보았는데, 실제로 서점에 방문해 보니 젊은 층의 높아진 관심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텍스트 힙’의 일원인 여러분께 원주 독립 서점 4곳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대형 서점에 비하여 서적의 배치가 자유롭고 분위기가 개성적이라는 게 독립 서점의 특징이죠. 주인공의 시선이 한껏 담긴 특별한 책방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 빵처럼 책을 먹어요, 책빵소

첫 번째로 방문한 독립 서점은 단계동에 있는 책빵소입니다. 입구 위 쪽으로 보이는 큰 간판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히 보인 덕분에 찾아가기 수월하였습니다. 입구 부근에 놓인 ‘마음빵’이 시그니처 상품이었는데, 봉투 안에는 외부에 적힌 멘트와 어울리는 책이 들어 있습니다. 업서와 문구류 그리고 자그마한 책상까지,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입구 좌측에 비치된 페미니즘 코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슈와 관련된 도서 위주로 비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책들에 담긴 여성 인권 분야가 다양한 측면이 흥미로웠습니다. 퇴근하고 방문하여 취재 시간이 짧았음에도 사장님께서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셨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Q. 책빵소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책빵소의 개성은 독립 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 출판 도서가 많은 편인데, 혼자 출판하는 만큼 작가의 색채가 많이 묻어 나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Q. 책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책을 교양이 아닌 즐길 거리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막 무겁지 않게. 독립 출판 도서는 평소에 독립영화나 인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소비하기 편리하거든요.”

사장님 말씀처럼 독립 출판 도서가 매우 많았고, 각기 다른 색감과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독립 출판 도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책빵소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02 반짝이는 생각을 뜯쳐로 건지다, 생각의 뜯채

다음으로 방문한 독립 서점은 같은 단계동에 위치한 생각의 뜯채입니다. 생각의 뜯채는 문예 창작을 전공하신 사장님께서 2021년 10월 1인 출판사로 시작해 지금은 책방의 역할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방명록이 놓인 공간에는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필사 콘텐츠가 있었고, 도서는 문학, 시, 공유 서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엄마’라는 키워드의 책들을 모아두신 코너가 인상 깊었는데, 엄마의 의무가 아니라 자신 그리고 여성에 집중한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방문하였지만, 사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신 덕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책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최근 김애란 소설가가 손석희 씨와의 대답에서 AI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망설임이라고 답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하여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사람의 말, 생각,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요. 생각의 뜯채의 슬로건이 ‘반짝이는 생각을 뜯쳐로 건져 올려 읽을 만한 책을 짓고, 쓰는 감각을 돕습니다.’인 것처럼 세상에, 책방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하고 쓰는 감각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생각의 뜯채에서 더 많은 독자가 망설임을 배운다면 세상이 더 섬세해지고 부드러운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만든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장님께서 책을 만드는 과정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책을 직접 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각의 뜯채를 추천해 드립니다.

03 시간이 붉게 무르익는 공간, 시흥서가

세 번째로 방문한 독립 서점은 이화마을에 자리한 시흥서가입니다. 건물 입구에는 시흥서가에서 진행하는 북클럽 일정이 담긴 안내판이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면 서점 입구가 나옵니다. 시흥서가의 책은 매우 상세한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어 특정 분야 도서를 찾는 경우 유용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절판된 여러 고전 도서가 많아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구하기에 안성맞춤인 서점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음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질문마다 매우 상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Q. '시흥서가'의 뜻이 무엇인가요?

시는 시간 시(時)이고 흥은 붉을 홍(紅)입니다. 근처에 감나무 다섯 그루가 있는데, 때가 되면 붉어지는 감나무를 보고 시간이 붉게 무르익는다는 의미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Q. 시흥서가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흥서가는 다양한 독서 공동체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나 관계들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Q. 책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책을 사랑합니다. 책을 사랑해서 이 일을 시작했구요. 내가 사는 동네를 책방이 있는 동네로 만들고, 지역의 등불 역할을 하고 싶다는 초심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갈 채비를 하던 중, 사장님께서 오래전 외부 기관과 진행하셨던 인터뷰 자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읽어 보니 이번에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었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는 마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04 시를 사랑한다면, 이서책방

마지막으로 취재한 책방은 단계동의 이서책방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시민기자분께서 취재하셨을 정도로 유명한 서점인데, 인터뷰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취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책방이 다른 독립 서점과 달랐던 부분은 전통적인 서점에 가까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가 주를 이루었고, 신간도 많이 입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책방의 개성만큼은 전통적인 서점의 이미지를 한참 벗어났는데, 시를 쓰시는 사장님께서 출간하신 네 권의 시집을 판매 중이었고 원주 지역 작가의 작품을 모아둔 책장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개성의 조화, 이상적인 서점의 모습이라 느꼈습니다. 셀 수없이 많은 시집을 둘러보다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시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진행하시는 시집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Q. ‘이서책방’이라는 이름에 담긴 특별한 뜻이 있나요?

‘이서(異書)’는 그리 흔하지 않은 진기한 책을 의미합니다. 책방이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은 골목에 있는 진기한 곳이라고 할까요? 몰래 들여다보고 싶은 골목 책방입니다. 또한 ‘이서’는 책방지기 이름의 앞 두 글자와도 같습니다.

Q. 이서책방만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이서책방은 골목에 숨어 있지만 원주 유일의 문학 서점입니다. 책방지기가 시를 쓰고 있기에 다른 서점보다 시집이 많이 준비된, 시 전문 서점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에도 없는 시계간지를 많이 비치하고 있어 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열

람을 위해 찾기도 합니다. 문학과 독자들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소통으로 문학 서적 큐레이션을 하며 작가 초청,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열기도 합니다.

Q. 책을 통하여 세상에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모두 바쁘게 지내는 요즘, 잠시 느리게 흐르는 시간으로의 초대라고 할까요? 책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바쁜 일상과 잠시 차단되어 종이 냄새를 맡으며 책을 고르다 보면 무언의 위로를 전해 드리고 싶어요. 책에서 좋은 문장 하나를 고르면 사람의 하루가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한 권의 책을 통해 일상의 평범한 풍경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마치 시 한 편과도 같은 답변들이 감명 깊었습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방문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취재하며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은 이토록 개성과 교훈이 넘치는 책방들을 모르고 지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모르는 미답지에 빠져드는 듯한 감상을 강하게 체험하였고 이제부터라도 자주 방문해야겠다는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형 서점에서는 금금해하지 않았던 비치의 목적을 상상할 수 있고 사장님과 대화를 해보며 나의 예측이 맞았는지 맞춰보는 과정도 재미있었습니다.

책은 우리 곁에, 우리 동네에,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정제된 공간과 절제된 분위기를 넘어, 이웃 주민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독창적인 개성을 만끽할 수 있는 독립 서점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글·사진 신윤석_원주문화정보 시민기자

공간 W :

시립중앙도서관 이전 개관 10주년, 그리고 박경리 탄생 100주년의 시간 위에서

문학으로 미래를 여는 원주의 두 심장



#박경리문학공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
#박경리탄생 100주년
#한도시한책읽기



문화적 토양과 두 개의 심장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

한 도시의 정체성은 그곳이 품고 있는 공간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원주는 조선 시대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의 학문과 운곡 원천석의 선비 정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의 생명 사상이 오랜 시간 흐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깊은 문화적 토양 위에서 지난 2019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원주는 올해,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이라는 거대한 유산과, 원주시민의 정신적 오아시스인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의 단구동 이전 개관 10주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원주의 문학적 과거와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끊임없이 문화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도시의 두 심장입니다.

박경리문학공원, 생명 사상의 발원지이자, 한국 현대문학의 거대한 뿌리

그 첫 번째 심장은 단구동에 자리한 박경리문학공원입니다. 이곳은 박경리 작가가 살며 대하소설 토지의 제4부와 5부를 집필하고, 마침내 26년간의 역사적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은 한국 문학사의 성지입니다.

문학공원의 관람은 입구에서부터 하나의 짧은 산책처럼 시작됩니다.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걸으면 넓은 마당과 박경리 선생이 머물렀던 옛집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조형물이나 인위적인 연출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된 나무와 장독대, 흙길과 돌담이 어우러져 작가가 실제 생활했던 공간의 분위기를 담담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원은 크게 박경리 문학의 집, 작가의 옛집, 야외 산책로(소설 『토지』의 공간들을 상징적으로 재현한 ‘평사리 마당’, ‘홍이 동산’, ‘용두레벌’이라는 세 개의 테마 산책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박경리 문학의 집 내부에는 박경리 선생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가 마련돼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작가 연보와 주요 작품이 시대별로 정리돼 있으며, 『토지』가 집필되던 과정과 작품이 한국 문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의 발길이 오래 머무는 곳은 육필 원고 전시 공간입니다. 유리 진열장 속 육필 원고는 많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힌 필체는 작가의 사유와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책으로만 만나던 박경리 문학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속 원고와 생활 유품들은 대하소설 『토지』를 써 내려간 한 소설가의 삶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했습니다.

전시관을 지나면 박경리 선생이 생애 마지막까지 머물며 작품을 써 내려갔던 옛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색 외벽의 단정한 집은 울창한 나무와 정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가는

박경리 선생이 생애 후반을 보내며 소설 『토지』를 완성한 실제 거주공간. 현재는 박경리문학공원 핵심 공간으로,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 안영민



『토지』의 대장정을 마무리했고, 수많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문장들을 남겼습니다.

잘 가꾸진 정원과 잔디마당은 자연을 사랑했던 작가의 삶을 보여줍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머물고 싶은 풍경 속에서 방문객들은 작품 속 세계뿐 아니라 작가가 살아온 시간과도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문학공원의 옛집은 박경리 문학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으로, 원주가 품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문학적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 안 곳곳에는 당시 사용했던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남아 있어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작가의 일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오래 시선이 머문 곳은 집필 공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방 안에는 낮은 책상과 책, 필기구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창밖의 나무와 조용한 빛이 머무는 공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작가가 오랜 시간 문장과 함께 보냈을 하루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거대한 서사의 세계는 결국 이런 평범한 책상 위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문학관 관람을 마친 뒤에는 야외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나무와 꽃길, 벤치와 쉼터가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공원 뒤편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이곳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사색과 휴식의 장소임을 느끼게 합니다.

박경리문학공원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작가의 유품이나 집필 도구를 박제하듯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위대한 예술가가 처절한 고통과 고통 속에서 문장을 길어 올린 창작의 산실이자, 원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학 도시로 뿌리를 내리게 한 정신적 발원지라는 점에 있습니다.

옛집의 빛바랜 서재와 거실은 여전히 토지의 묵직한 호흡을 간직한 채,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뒷받침하는 단단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 옛집 입구와 육필 원고.
©안영민

지식의 숲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전 10년의 발자취

박경리 선생 옛집에서 태동한 문학적 유산과 생명의 호흡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심장, 원주시립중앙도서관으로 이어져 장엄한 지식의 숲을 이룹니다.

지난 2016년 단구동으로 새롭게 터를 옮겨 앉은 도서관은 올해로 이전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동적인 공공 문화의 중심으로 진화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서관은 문학 창의도시의 거점으로서 매년 수십 개의 인문학 대중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쏟아내며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해 왔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은 이제 원주시민의 거대한 서재이자 공동체의 지혜가 모이는 소통의 광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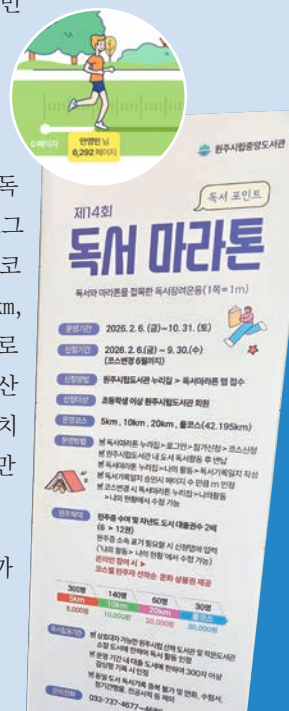


책을 읽는 도시, 함께 참여하는 시민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의 특징은 단순히 많은 책을 보유한 시설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서관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독서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로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독서마라톤’ 안내판이었습니다. 독서마라톤은 독서와 마라톤을 결합한 대표적인 독서 장려 프로그램입니다. 읽은 책의 쪽수를 거리로 환산해 목표 코스를 완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km, 10km, 20km, 풀코스(42.195km) 등 참가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한 페이지를 1m로 환산해 독서량을 기록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독서의 성취감을 눈에 보이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독서마라톤은 어린이부터 성인까



지 꾸준히 참여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독서를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층 어린이도서관 내부에는 '천 권의 아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완독자 명예의 전당과 '천 권의 아이 달성 메달' 전시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독서 습관을 이어나 어린이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고, 1,000권 독서를 달성한 어린이들에게 수여된 메달도 함께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시 공간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일이 결국 한 사람의 성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원주 독서대전과 연계해 진행되는 '미션! 빙고투어' 역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가자들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지역 서점 등 17곳의 독서문화 공간을 방문하며 다양한 독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독서와 놀이, 체험을 결합한 방식은 도서관을 보다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성장으로 이어진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이러한 노력은 전국적인 평가로도 이어졌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최근 제58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서대전'과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마라톤' 등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특히 독서마라톤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독서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완독자 명예의 전당과 독서 기록 시스템 역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원주만의 독서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학 창도시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오늘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문장을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지금도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시민들 곁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백년의 시간 속으로' 도서관에서 이어지는 위대한 유산의 계승

현재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박경리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 도서전 《백년의 시간 속으로》가 운영되고 있다. 『토지』를 비롯한 한 대표 작품과 작가의 생애를 소개하는 자료들이 차분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장기 운영되는 이번 전시는 화려한 연출보다 차분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들어오며 로비에 놓인 책과 문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게 만듭니다.

평소 대출과 예약이 밀려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박경리 작가의 저서 전 권과 친필 원고 사본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어린이자료실 한편에도 별도의 박경리 도서 코너가 마련돼 있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문학사에서 고유한 위치를 확립해 가고 있는 박경리 문학상의 역대 후보작 및 수상작들을 소개하는 특별 코너는, 과거 단구동 옛집에서 흘러나온 문학적 줄기가 어떻게 전 세계의 문학인들과 오늘날의 시민들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경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전 <백년의 시간 속으로>. © 안영민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빛나는 어린이자료실부터 사색에 잠긴 시민들로 가득한 열람실까지, 도서관은 박경리가 뿌린 문학의 씨앗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만개했는지를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미래를 향해 우렁차게 뛰는 원주의 두 심장

과거의 치열한 창작과 생명 사상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숨 쉬는 박경리의 옛집,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아 시민들의 삶을 지혜로 채우고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 문화 공간으로 우뚝 선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 두 공간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문화적 에너지는 원주를 단순한 행정이나 산업 도시가 아닌, 깊은 사유와 문학적 향기가 흐르는 품격 있는 도시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두 공간의 심장소리가 한층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질 원주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공간 W :

거인을 만나는 공간 선종완 유물관

사람과 시대를 기억한 작은 유물관



#선종완 #용소막성당

#유물관 #성경번역 #신림

원주시 신림면 용암 2리에는 붉은 벽돌과 뾰족한 첨탑이 인상적인 용소막성당이 있다. 1915년 완공된 이 성당은 고딕 양식의 단정한 아름다움과 함께, 강원지역 초기 가톨릭 신앙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이자 원주 8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성당 앞마당에 서면 오래된 벽돌 건물과 높은 하늘, 성당과 역사를 함께한 나무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든다. 하지만 용소막성당의 의미는 단순히 '아름다운 성당'에 머물지 않는다. 이곳은 한국 천주교 성서 번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선종완(1915-1976)의 출생지이자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성당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길

선종완 신부는 1915년 용소막성당 인근 용암리에서 태어났다. 열심히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그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부터 성당과 함께 성장했다. 신림공립보통학교 시절 이미 사제의 꿈을 품었고, 소신학교에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성직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부모는 3대 독자인 아들이 가업을 잇기를 원했으나 그는 수도자의 길을 선택했다. 한때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신학교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소명을 성경 연구와 사제직에서 찾았다.

이후 그는 일본, 이탈리아,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유학길에 올라 신학과 성서학을 깊이 공부했다. 특히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직접 읽고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며, 한국 천주교 안에서도 드물게 성서 원전 연구에 기반한 학문을 수행한 인물이 되었다.

성경 번역에 바친 평생

귀국 후 선종완 신부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평생을 성경 번역에 헌신했다. 당시 한국 천주교에는 구약성경의 완전한

우리말 번역이 없었고, 그는 이를 독자적으로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구약성경 여러 권을 번역해 출간했다. 그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원어 성경의 의미를 한국어로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그는 번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추리를 사육하는 등 생활 속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학문과 삶, 신앙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은 독특한 방식이었다.

이후 1968년부터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참여한 공동번역성서 번역 작업에도 참여했다. 가톨릭 측 구약 번역의 핵심 인물로 참여한 그는 거의 하루 대부분을 번역과 교정에 쏟아부으며 작업을 이어갔다. 공동번역성서는 훗날 한국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번역으로 평가받게 된다.

청빈과 겸손의 삶

선종완 신부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청빈'과 '겸손'이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생활은 철저히 검소했다. 낡은 신발을 "아직 더 신을 수 있다"고 말하며 쓰고, 작은 사제관에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생활했다. 수녀원과 공동체에서도 그는 늘 먼저 몸을 움직이며 노동을 함께했다.

그가 설립한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역시 그의 영성을 반영한 공동체였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며 교육과 노동, 기도를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로 발전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겸손과 봉사를 강조했다.

“끝까지 겸손하며 가난해야 하며
서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유언이자, 동시에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었다.

용소막성당 유물관, 한 사람의 삶을 담은 공간

용소막성당 옆에는 작은 벽돌 건물의 유물관이 있다. 이곳은 선종완 신부의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성당 정면 왼쪽에는 그의 동상과 안내 동판이 서 있으며, 그는 왼손에 성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올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유물관 내부에는 그의 삶을 상징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직접 손으로 그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지도
- 요르단 강, 갈릴래아, 로마 등에서 수집한 돌과 흙
- 성서 연구를 위해 기록한 스케치와 박물관 유물 그림
- 성경 번역 원고와 교정본

이 유물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를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가 직접 수집하고 제작한 교육 자료였다. 사진이나 인쇄물이 귀하던 시절, 그는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기록하며 성경의 현장을 재현하려 했다. 유물관은 그래서 작은 전시관이라기보다, 한 사람이 평생동안 성경을 어떻게 ‘살아낸 학문’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에 가깝다.



선종완 신부의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는 유물관.
생전 사용한 물건들과 사제복 등을 볼 수 있다. © 원주문화재단 DB



① 1939년 신학생 시절. 뒷줄 왼쪽 첫번째가 선종완 신부.
② 1942년 서품 후 기념사진으로 앞 줄 오른쪽에서 첫번째가 선종완 신부. © 천주교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 제공

거인을 만나는 자리

용소막성당을 찾는 많은 이들은 고딕 양식의 아름다움과 고요한 분위기에 매료된다. 그러나 조금 더 걸음을 옮겨 유물관에 들어서면, 그곳에는 단순한 종교 인물이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한 학자이자 사제의 삶이 펼쳐진다.

선종완 신부는 화려한 업적보다, 끝까지 한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기억된다. 성경을 원전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쉬운 말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지금도 한국어 성경 곳곳에 남아 있다.

용소막성당과 유물관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다. “한 사람의 삶은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이곳은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글 이원희·원주문화정보 전문필진(강원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진 천주교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원주문화재단 DB

공간 W :

인쇄 문화의 꽃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치악산 자락에서 천년의 숨결을 만나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판화여행 #세계고판화문화제



고판화박물관 관람 안내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물안길 62

운영시간

오전 10:00~17:00(하절기 기준)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체험 포함) 학생 4,000원, 성인 5,000원

방문안내

033-761-7885

원주에서 영월로 이어지는 신림항둔길을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신림터널을 지나 1km 거리 안팎에서 고판화박물관 안내판을 만나게 된다. 이정표 안내에 따라 길을 오르면 치악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산길에 자동차에게도 가쁜 숨을 토해내게 한다. 숲으로 이어지는 길옆으로 작은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가 마음을 한층 가다듬어 준다.

“명주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고찰은 아니지만 고판화박물관을 비롯해서 국립중앙도서관보다 판화 관련 서적이 더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고판화 도서관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찰입니다. 판화학교와 템플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사찰 주변으로 이어지는 해발 600미터의 숲속 명상길이 있어서 마음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복합문화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주사는 그리 오래된 절이 아니다. 사찰마다 하나씩 있는 특별한 전설이 있는 곳도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산사의 고요함과 특별한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사찰이기 때문이다.

명주사는 국내 유일의 고판화박물관을 품고 있어 고즈넉한 사찰 분위기 속에서 귀중한 동양의 불교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다. 본격적인 고판화 작품을 만나기 전에 사찰을 둘러본다. 법당에 들어서니 금빛으로 번쩍이는 불상이 아닌 나무로 조각된 불상이 이색적이다. 명주사 주지스님인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이 전공을 살려 직접 조각한 작품이라고 하니 그 의미가 남다른 불상이라 여겨진다.





고판화 박물관 전경. © 김응섭



①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판화작품을 해설하는 한선학 관장 ② 목판화 체험 중인 탐방객 ③ 고판화 박물관 옆 고판화도서관. 낡은 책 냄새에서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④ '이로리'로 불리는 일본식 화로상자로 변형되면서 심하게 훼손돼, 일제시대 우리 문화재가 겪은 수난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받고 있는 오륜행실도 목판. © 김응섭

사람은 누구나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고판화에 미친 사람이야. 국가가 인정한 미친 사람이죠. 30년 세계를 다니면서 고판화 관련 자료를 6천500점 정도 수집을 했어요. 귀한 작품을 소장하게 될 때는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흥분되기도 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죠. 저의 미친 30년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고판화박물관이 태어난 겁니다.”

낡은 나무 대문으로 만들어진 출입구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박물관을 들어서는 순간 천년의 숨결이 훅 하고 느껴지는 것은 박물관을 찾는 기분에서일까, 진하지 않은 묵향과 더불어 마음에 조명을 밝히듯 서서히 고판화의 놀라운 섬세함과 멋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안내를 하는 한선학 관장의 끊이지 않는 해설에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마음이 죄송스럽기까지 하다.

국내 유일의 고판화박물관

고판화박물관은 공간을 6개 부분으로 나누어 바닥과 벽면을 사용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명주사는 국내 유일의 고판화 작품을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으로 2004년 문을 연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티벳, 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고판화 원판과 인출된 서적, 능화판, 시전지판 등 원본 판화 6천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연구와 전시를 함께 하고 있는 복합 체험센터라 할 수 있다.

고판화박물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목판인 오륜행실도와 중국의 불경심다라니경, 일본의 조엄 조선통신사행렬도 목판본, 강원도 유형문화재 152호인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등 하나 같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유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중 오륜행실도 목판은 일제강점기 '이로리'로 불리는 일본식 화로상자로 변형되면서 심하게 훼손돼, 일제시대 우리 문화재가 겪은 수난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고판화박물관의 시작은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한 관장은 “우연한 기회에 인사동 길거리에서 지장보살 목판을 1만 원에 구입하면서 판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늘의 박물관까지 이르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군중장교에서 전역하면서 본격적으로 고판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수집에 대한 일화는 끝이 없고 많은 난관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하는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에 충만되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의 얼굴에서 고회(古希)를 지나는 나이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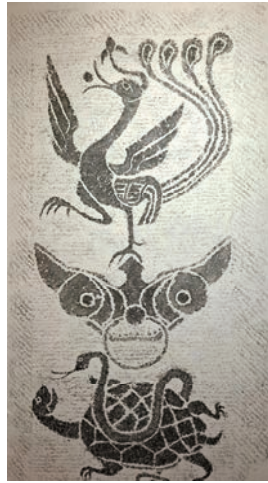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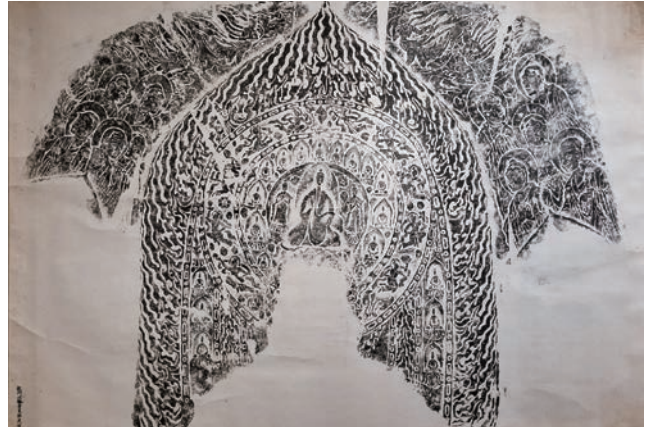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관장이 30여 년간 수집한 방대한 양의 판목, 용문석굴 탁본, 조선 중기 팔도지도, 중국 묘문화상, 조선 후기 해수관음상.
© 김응섭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찾아내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과 같이 행동과 실천이 따른다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고판화박물관 옆에는 고판화도서관이 있다. 고판화 관련 서적이 4천여 점 전시되어 있고 판화학교를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다.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는 책 틈으로 몇백 년의 시간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다.

도서관 구석에 자리한 탁자에서 앉기를 권한다. 차를 따라 주는 섬세한 손길조차 공손함이 배어 있다.

“판화에는 섬세한 손길과 땀방울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그림이나 글씨만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 생활, 예술 그리고 꿈이 담겨져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며, 인간의 윤리와 문화를 일깨워주려는 의미들이 나무판에 한 획 한 획 새겨지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판화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들의 숨결도 함께 느낍니다.”

몇 년 전부터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숲속 판화여행’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판화를 소개하고, 체험을 통한 판화문화를 공유하며 숲속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새로움을 채우는 다양한 문화 체험센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04년 개관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고판화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 중국 소주미술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전시회에 ‘귀비취주도’를 출품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고판화박물관은 전시만이 아닌 연구소 형태의 박물관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9월 18~19일 ‘원주 세계 고판화문화제’를 개최해 고판화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문화재 기간에는 국제 학술대회와 한국, 중국 전통 판화 명인들의 판화 인출 시범도 펼쳐진다. 물론 일반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고판화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한 무리의 새떼들이 숲속으로 날아든다. 조잘거리는 소리가 하늘에 활차처럼 새겨져 햇살을 타고 몸으로 스며든다. 삶의 한 모퉁이를 갈고 다듬어 누군가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몇 마디 말이라도 남기고 싶어지는 소회를 가슴에 담는다.

글·사진 김응섭 원주문화정보 시민기자

사진 고판화박물관 제공

예술in People



‘바린이’ 묵혀둔 동경을 꺼내든 사람들 _허윤주
우리들의 영원한 방울꽃 할아버지 _장시우

예술in :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반곡분관 시민 바이올린 교실 이야기

‘바린이’ 묵혀둔 동경을 꺼내든 사람들

#원주시평생교육원학습관 #바이올린 #바린이 #성장 #동경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반곡분관 바이올린 수업이 개설 3년 차를 맞았다. 2024년 봄학기 이후 수십 명의 ‘바린이(바이올린 초보 입문자)’들이 거쳐 갔지만 올해는 더 특별하다. 왜냐하면 오래된 꿈을 행동에 옮긴 은발의 정열가들이 잇달아 합류해서이다. 클래식 음악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거리가 느껴지는 분야다. 게다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악기를 지긋한 나이에 도전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결심이었을 것이다. 기사를 쓰고 있는 필자 역시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1년 차 ‘바린이’임을 살짝 밝히며 글을 시작한다.



2024년 연말 연주회. 왼쪽에서 세 번째가 당시 참관 오신 김원태 어르신이다. © 허윤주

“너무 늦었을까요?” 91세 어르신이 불러온 활기

바이올린은 왼손은 지판을 짚고, 오른손은 활대를 그어야 해서 신체의 유연성을 요하는 악기 중 하나다. 또 고운 소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까다로운 악기로 손꼽힌다. 올해 3월 바이올린 교실에 김원태 어르신이 등록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희끗해진 머리와 보청기를 낀 모습에 연배가 있으리라 짐작했지만 만 91세는 상상을 넘어선 숫자라 강사도, 수강생들도 놀랐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직접 반곡분관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등록을 마쳤다.

김 어르신은 노인복지관 기타, 하모니카 교실을 다닌 적이 있는 음악 애호가. 손주가 쓰던 바이올린을 집에 수십 년 보관하고 있었는데 늘 “저거 한번 해볼까”하는 마음만 가졌었다. 바이올린을 시작한 후 바이올린의 주인이었던 손자는 “그걸 뭐 하려 하시냐?”라며 의아해했고, 아내는 “밥 드시라고 불러도 연습만 하니 그게 그렇게 재밌냐?”라고 신기해한다고. 사실 2024년 바이올린 강좌가 처음 개설됐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사무실에 문의도 하고 연말 연주회를 참관하기도 했지만, 결심까지 2년이 걸렸다. 어르신은 “힘은 들어도 재미가 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할 걸 그랬다”라며 아쉬워하신다.

올해 등록한 17명 중 남성은 20대 청년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모두 4명. 수강생 중에는 분만 예정인 예비 엄마,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배우러 온 젊은 엄마도 있다. 주축을 이루는 50~70대 주부들은 노안, 손가락 관절염, 허리 통증 등 세월의 장애물과 동행하며 연습 중이다. 91세 어르신의 등장 이후 갑자기 ‘이른 나이’에 시작한 새댁들이 되는 바람에 “늙으니까 아프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말들이 쑥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악보도 읽을 줄 모르는 생초보의 1년 입문기

지난해 8월 가을 학기에 바린이가 된 나는 그동안 음악과는 멀리 살았다. 어릴 적 음악학원 하나 없는 시골서 자랐고, 있어도 배우지 못했을 형편이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나이 들수록 친구 삼을 수 있어 좋겠다 싶었다.

기회는 정말 우연히 찾아왔다. 남편의 회사 동료의 해외 근무 발령이 나면서 이삿짐을 줄인다고 자신이 배우다 포기한 바이올린을 주고 간 것이다. 철제 악보대, 초급 교본 몇 권과 함께. 그 뜻밖의 물건을 방구석에 둔 지 6개월쯤 흘렀을 때 문득 원주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본 바이올린 교실이 생각났다. 궁금은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 나이에 해서 뭘 해”,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뭘까?” 주저가 앞섰다. 그래도 한번은 시도해 봐야 미련이 없을 것 같았다. 음악학원 근처에도 못 가본 어린 날의 나에게 주는 선물인 셈치고 ‘비장’한 등록을 마쳤다.

바이올린 가방을 어색하게 어깨에 메고 찾아간 첫 수업 날. 반곡분관 교실에 10여 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다. 수준은 다 달라서 벌써 스즈키(대표적인 바이올린 교본) 4권을 시작한 ‘대선배’도 있었다. 생초보 동기생 7명은 스즈키 1권도 아닌 더 초급 교재를 사용했다. 손가락을 누르지 않은 개방현 1줄 굿는 것이 다였지만 쉽지 않았다. 소리가 잘 나지 않을뿐더러 괴상한 소리를 냈다. 활을 계란 쥐듯이 살포시 잡고 1자로 그으라는데 손에는 힘이 들어가고 활은 비틀뚝했다. 각자가 내는 소음이 뒤섞인 곳에 있자니 머리가 아팠다.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냥 한 학기만이라도 마치자고 다독였다.

악기와 친구가 되어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

내가 들어도 괴로운 선율을 선생님 앞에서 들려주는 일은 곤욕이었다. 어린아이처럼 긴장이 되어 굳은 어깨가 더 굳고 버벅댔다. 집안일하는 틈틈이 연습을 했다. 8~9월 더위가 한창일 때였는데 아파트 소음이 걱정돼 방문, 창문을 다 닫았다(나중에 소리를 줄여주는 약음기라는 것이 있음을 알고 많이 억울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사서 하는 고생이었다. 식구들에게도 미안했다.

동기생 중 저만큼 앞서가는 이들이 생겼다. 잘하려 서둘러도 소용 없었다. 악보 까막눈이라 한 음씩 더듬더듬 쪼으며 느리지만 그들을 따라갔다. 교실의 소음도 내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았다. 주말 굿다가 ‘나비아’,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연주하니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혼자 연습할 때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곡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거치면 수월해지는 마술이 일어났다. 다음 곡이 기다려졌다. 그렇게 에튀드, 미뉴에트 등 소품곡으로 이어지며 바흐, 헨델, 베토벤을 만났다.

지인의 바이올린이 갑자기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궁금해하면서 망설이고 있을까? 아마 바이올린을 배워보고 싶어도 비쌀 것 같아 주저하는 이들도 많을 듯하다. 전문가용은 역대급에 이르지만 수강생들이 사용하는 바이올린은 20~50만 원 안팎의 입문용이 대부분이다. 최근엔 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 시장에 5만 원대 악기도 많이 올라와 있어 접근이 쉬워졌다. 수강 초에 소리가 잘 나지 않아 내 ‘공짜’ 악기에 문제가 있나 싶어 바꿀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님이 내 악기로 연주하는 걸 듣고 반성했다. 악기는 전혀 죄가 없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든든함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도 겸하고 있는 이다혜 강사는 “어르신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악보를 들여다보며 쉬지도 않고 열심인 모습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감동을 받는다”라며 미소 짓는다. 근육이 유연한 어린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점도 있지만 성인들은 자신이 고민 끝에 강좌를 선택했기 때문에 열정과 연륜에서 오는 꾸준함이 강점인 것 같다고 설명한다. 초보자들의 줄 굿는 소리가 괴롭지 않냐는



① 합주 연습. 수강생 모두 진지해지는 시간이다.
② 김원태 어르신이 수업 중 이다혜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 허윤주

질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평생 해온 악기를 같이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며 수업 시작 전 복도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소리라고 안심시킨다. 믿기진 않지만, 소리가 매끄럽지 않아 속상한 수강생들이 믿고 싶은 말이긴 하다. 1인당 할애되는 시간이 짧은 점이 아쉽지만 진도가 앞선 선배에게 배우고 서로 자극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수강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건 단체레슨의 최대 장점이다.

학기 말에는 각자 하고 싶은 곡들을 골라 조출한 연주회도 연다. 연말에는 쉬운 크리스마스 캐럴을 합주하기도 한다. 혼자 앞에 나가 연주할 무개감에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게 되니 부쩍 실력이 붙는다.

바이올린에 재미가 드니 이 악기가 특별한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 다른 배경, 나이의 사람들이 같은 취향을 갖고 한 교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유대감이 생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수강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한층 가까워졌다. 수업 땀 각자 연습하느라 악기에 관한 대화 말고는 개인생활에 대해선 나눌 기회가 적다. 김 어르신은 황해도가 고향으로 동아방송 창립 초대 멤버이자 방송 엔지니어로 일했다는 특이한 경력도 들려줬다. 두 아이의 아빠로만 알고 있던 이동원님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교대근무일에 수업에 나온다고 한다. 입문 2년 만에 수준급 연주를 하는 실력파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했다는 75세 조종현님은 가톨릭 신자로 ‘아베마리아’라는 인생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게 꿈이란단다. 25세 최승원 군도 있다.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AI 여파로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며 출석하는 씩씩한 청년이다.

아이들 다 키운 뒤 자신을 위한 첫 취미를 선택해 5학기째 개근 중인 정미경님, 몇 년 전 눈 수술로 한쪽 시력이 나빠져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이수하님, 관절염 걸린 손가락에도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영어강사 출신의 이정임님, 두 딸이 배우던 바이올린과 교본으로 연습하며 미래에 오케스트라 활동을 꿈꾸는 이은옥님, 피아노를 오래 배운 덕분인지 초등생 아들과 나란히 시작했는데 진도가 한참 앞서가는 김은별님 등 다양한 배경의 원주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이 글을 쓰는 즈음에 나는 스키 2권 끝 곡을 겨우 마쳤다. 3권에 올라간다니 스스로 대견하다. 일상 속 설렘과 조금씩 성장한다는 느낌이 새삼 소중하다. 그리고 인생의 지혜도 덩으로 얻어가고 있다. 그 만두지만 앎으면 느리지만 분명히 나아진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마음속 깊이 품은 동경이 있을 것이다. 너무 오래 묵어서, 또는 너무 은밀해서 있는 줄도 모르는 꿈과 소망을 “이 나이에 새삼, 잘하지도 못할걸, 너무 늦었잖아...” 외면하면서 말이다.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프리카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라고 한다. 속담 속 나무는 꼭 나무에 관한 얘기가 아닐 것이다. 미뤄두었던 꿈, 간직해온 소망,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늦지 않았다고, 지금 하라고 건네는 조용한 격려일지 모른다.

글·사진 허윤주_원주문화정보 시민기자

예술in :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임교순 아동문학가

우리들의 영원한 방울꽃 할아버지



#방울꽃 #임교순 #아동문학가

#김소위와노루 #동시

임교순

아동문학가

임교순 아동문학가는 한평생 어린이 마음으로 동시와 동화를 써왔다. 임교순 아동문학가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방울꽃은 해방 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죽을 끓이기 위해 산나물을 캐러 가서 꺾어 온 은 방울꽃을 아들에게 건네주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쓴 동시다. 1966년 새한신문에 발표한 것을 동요 작곡가로 유명한 이수인 선생이 곡을 붙여 전국 방송을 타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어 국민동요가 되었고, 교과서에도 빠지지 않고 실리는 작품으로 임교순 아동문학가의 대표작이 되었다.

1938년 황성에서 태어난 임교순 아동문학가는 1971년 '연못 속의 동네'라는 동화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동화, 동시, 동요 등 다양한 아동문학 장르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임교순 아동문학가는 1983년 춘천 효제초등학교 재직하던 중 제18회 강소천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김 소위와 노루'로 1976년 현대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1980년 원주초등학교로 발령받으면서 원주에 정착하게 되었고 교사 시절에는 퇴근 후 밤에 글을 쓰며 작가의 일상을 이어갔다. 2000년 8월 중앙초등학교를 끝으로 43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났고 2008년 동화 '다람쥐 아빠'로 제1회 강원교원작가상을 받았다. 2012년 원주예총의 '원주예술상'에서 매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주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강원아동문학회를 창립하였고, 원주문인협회장을 역임했다. 이처럼 임교순 아동문학가는 작품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 문학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강원도 문학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원로로 꼽힌다.

아동문학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의 마음을 가진 분들만 쓸 수 있거나 쓰는 문학이라 생각하곤 했는데 실제로 아동문학가를 만나보면 대체로 그랬다. 아동문학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덩달아 마음이 순해지고 맑아진다. 설레는 마음으로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장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던 임교순 아동문학가를 만나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장시우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뵈니 무척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등단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문학 모임에서 처음 뵈고 인사드리고 이후에는 뵈기 기회가 없었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여든 살 정도이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올해가 구순이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방울꽃의 작가 임교순 선생님을 만날 거라고 했더니 '임교순 선생님이 원주 사셔요?' 하면서 놀라더군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방울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선 방울꽃을 먼저 쓰시고 난 뒤에 등단하셨지요?

임교순 작가 나는 등단한 지 오래되었어요. 60년대 후반기부터 신춘문예를 통과하려고 많이 노력했지요. 방울꽃은 내가 등단하기 전에 썼어요. 그 시절에 교사들만 보던 새한신문이라고 있었어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응모하는 그곳에 동시를 냈지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차 같은 마음'이라는 시였어요. 그걸 어떻게 썼냐면 수업을 끝내고 탁자에 앉으니까 한 아이가 와서 옷에 묻은 분필 가루를 털어줘요. 그때는 분필을 썼으니까 칠판 앞에서 움직이다 보면 옷에 분필 가루가 잘 묻었어요. 아이는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었지만, 아이는 그게 무척이나 뿌듯했는지 애가 행복한 표정으로 문 열고 뛰어나가서 운동장을 신나게 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썼어요. 그게 당선됐어요. 그때는 전국 교사들 공모에 당선되기도 상당히 힘든데 당선되어도 문인으로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다음에 수기 공모에서도 당선되었지만, 문학 활동은 교육계 신문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신춘문예 준비를 하면서 한 10년간 동화를 썼어요. 60년대부터 71년에 이르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최종심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한두 사람으로 저울질하는데 거기서 떨어지고 해서 '내가 재주가 없나보다. 평생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만두어야 했는데 또 신춘문예 철이 오면 열병을 앓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환상적인 동화 '연못 속의 동네'를 써서 응모했지요. 신춘문예는 전년 11월에 공모해서 발표는 그 이듬해 1월 1일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오. 그런데 응모자가 엄청 많아요. '산골짜에 다람쥐'를 쓴 김영일 선생과 문인협회 부이사장 했던 김요섭 선생 두 분이 심사를 봤더라고요. 방학이라 사택에 있는데 학교 급사가 와서 '선생님 한국일보 동화에 당선됐대요.' 그래서 '거짓말 아냐?' 그랬더니 맞다며 '당선 소감 보내 달래요.' 그렇게

문인이 된 거지요. 문인의 문에 들어서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하나 그러면 내가 아동문학을 선택한 건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좀 발랄하게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써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때부터 많이 썼어요.

장시우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등단하셨군요. 등단 전부터 동시와 동화를 쓰셨고 또 평생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임교순 선생님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작품이 방울꽃이네요. 방울꽃은 오랫동안 교과서에 실렸고 저 역시 학교에서 그 노래를 배웠는데 방울꽃 노랫말이 너무나 순수하고 예쁘고 다양한 감각을 자극해서 좋아하거든요. 그 방울꽃은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임교순 작가 내가 자랄 때는 일제강점기여서 학교가 아니고 서당 같은 데를 갔고 집에서 혼자 놀았죠. 그땐 먹을 게 없으니까 봄이 오면 어머니는 산나물 뜯으러 가고 나는 집에서 동생들 데리고 놀았어요. 산에 가서 산나물 뜯던 어머니도 산에 핀 꽃을 보면 배가 고파도 뭔가 위로받았고 즐거움을 느끼셨으니까, 개불알꽃이라고 복주머니처럼 생긴 꽃이나 방울꽃 같은 꽃을 보면 꺾어 가지고 오셨지요. 뭘 뜯어왔나 바꾸니를 열어보면 거기에 꽃이 담겨있었어요. 비록 아들이지만 당신 보시기에 좋았던 꽃을 아들도 보라고 꺾어 오신 거지요. 그때 내 머릿속에는 '이 방울꽃이 소리를 내면 어떻게 낼까? 큰 꽃이면 큰 방울 소리가 나겠지만 작은 방울꽃은 쪼로롱 소리가 나겠지, 방울꽃이 산속에서 혼자 피는 게 나 같구나, 산속에서 꽃이 혼자 피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렇게 자연은 생명체를 가진 것들을 다 조심스럽게 대하겠지. 갖고 싶다고 막 꺾고 그게 아니라 쪼로롱 소리가 날까 그냥 가겠지. 그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어른이 된 후에 어머니가 준 꽃을 보고 생각했던 걸 이렇게 쓴 거지요. 어린 시절의 생각과 경험을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그대로 쓴 거지요.

장시우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생각을 어른이 되어 쓰신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품었던 생각이나 경험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방울꽃이 노래가 되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임교순 작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든지 이런 건 평생을 걸쳐서 정서적으로 어떤 경험을 쌓고 그런 걸 경험하고 느끼게 하고 그 조그만 아이라도 꽃의 아름다움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는 꽃도 돈으로 보이고 비싸다 싸다 이런 생각만 하고 꽃의 아름다움이나 꽃이 가진 자연의 신비함 같은 것은 그냥 넘어가니까요. 방울꽃은 1966년도에 새한신문에 발표했는데 그때 마산 KBS 방송국에 있던 이수인 씨가 방울꽃을 보고 작곡을 하고 싶다고 연락했어요. 그전까지 이수인 씨와는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선생님의 방울꽃으로 작곡해도 좋겠냐고 염서로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좋다고 했더니 몇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마산 방송국에서 서울 KBS로 옮겨 왔으며 방울꽃으로 작곡을 했는데 ‘이 주일의 동요’라는 프로그램에 방송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티브이가 아니고 라디오만 들었으니까, 라디오에서 ‘이 주일의 동요’에 방송되어 음악이 짝 퍼지면 애들이 놀다기도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전국 아이들이 방울꽃을 배워 불렀어요. 그러다가 90년쯤에 교육부에서 방울꽃을 음악 교과서에 실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작사와 작곡가를 책에 올리진 않았어요. 지금은 유명한 동요는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관리를 해줘요. 이수인 씨가 곡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협회에 곡을 등록해 뒀서 교과서에 만들려면 저작권협회에서 저작료가 없으면 교과서에 못 실고 출판하려면 저작료를 그 저작권자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음악 담당 장학관이 좀 혼났지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음악 담당하는 장학사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방울꽃 가사 어딘가 그 한 부분을 잘못 실었어요. 교과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원작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직접 교육부 음악 장학관에게 전화했어요. 이 부분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겠냐, 교과서 다 거 뒤들여서 다시 찍겠느냐?라고 물었지요. 아이고 죽을죄를 지었으나 그렇게 할 수야 없지 않으나,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교과서 찍을 때 살짝 수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모른 척 넘어간 적이 있지요. 1990년도부터 교과서에 정식으로 작사 임교순 작곡 이수인을 다 넣고 제대로 찍었어요. 그런데 이수인 씨가 작곡인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수인 씨는 생전에 나하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이수인 씨도 바빴고, 연락이야 했지만 이수인 씨가 나보다 한 살 적었는데, 먼저 갔어요.

장시우 그럼 선생님께서 이수인 작곡가를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쓴 시를 이수인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 여러 편 되는 걸로 아는데요.

임교순 작가 그렇죠.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고 주로 전화로 연락했지요. 이수인 씨가 내 동요로 작곡한 게 한 10편 돼요. 그게 저작권 협회에 들어 있는데 방울꽃도 있고 시냇물도 있어요. 봄밤이라는 동시는 함평나비 휴게소에 시비가 있는데 여태 거길 못 가봤어요. 그 부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고, 지인들이 거길 지나다가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인터넷에서 보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금은 더 못 가지요, 다리도

아프고 해서 장시간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장시우 걸로 뵈기에는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임교순 작가 작년에 골반이 깨지고 고관절도 다치고 해서 죽을 뻔했지요. 고관절은 황성문화원에 심사하러 가다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금이 갔대요. 수술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해서 뼈는 부러지지는 않았다고 해서 수술하지 않고 참아본다고 하고 치료했지요. 요즘은 집 근처를 열심히 걷고 있어요.

장시우 정말 큰일이었겠네요. 한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말 이렇게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나는 글을 써야겠다,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작가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나요?

임교순 작가 내가 사범학교 다닐 때도 문예반에 있었고 학교 졸업하고 교사를 시작한 때가 57년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까마득해요. 처음 교사로 발령 나서 간 학교는 황성 용돈초등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지금은 없어요. 95년에 없어졌어요, 그때 애들과 봄 소풍 가서 점심을 먹는데 한 아이가 부러져 수액이 뚝뚝 떨어지는 소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선생님 나무가 피나요!’ 그래요. 그래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나면 뭘 하지? 아프지 않게 동여 매줘야지’ 그 말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이때까지 수액을 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피는 생명체이고 수액은 식물체의 피잖아요. 그 뒤부터 역시 아이들 말이나 아이들의 생각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어른인 내가 지키고 보호해서 키워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내 작품 속에는 생명 정신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사람이 피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악착 같아진 거죠. 우리가 소 먹으면서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소가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피 나는 거를 잡아먹으며 그 고기가 맛있네 어찌네 하지요. 그 피는 생명체에게 다 있는데 그 피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평화가 깨지는 요즘도 세계적으로도 피라는 걸 겁내지 않아요. 생명체들의 생명과 생명의 포인트가 피잖아요. 피를 잘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는 나무가 피나오 에서부터 왜 나무만 피가 나나, 소도 피를 흘리고 죽고 사람도 총알이나 포탄 핵이 떨어져서 피 흘리고 죽고 이런 종교와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다루고 그 피를 보호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한 거지요. 그래서 나는 자연을,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글로 써왔지요.

장시우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에도 글을 쓰셨어요?

임교순 작가 나는 어렸을 때 서당 같은 곳에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4학년부턴 입학했어요. 10살에 부모님 몰래 학교에 가서 ‘선생님 나 학교 들어줘요.’ 그렇게 학교 다니게 되었고, 학교에선 역사책도 외워 오라고 그러고 위문편지도 쓰라고 그랬죠. 어린 시절에는 그랬고 사범학교 3학년부턴 교사로 나가야 하니까 그때부터 책도 많

이 읽고 글도 본격적으로 썼지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틈나면 산비탈 양지쪽에 앉아서 글을 쓰곤 했어요. 그런데 그 문학은 선천적으로 자기가 좋아해야지 싫은 사람은 못 해요. 대부분은 한때 글쓰기를 좋아했고 많이 썼던 사람도 글쓰기를 대단치 않은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번 신춘문예로 나왔던 대학생들도 졸업하고 난 뒤에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글쓰기를 멈추기도 하지요. 글 쓰고 싶은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시간에 구애 없이 자기 혼자 써야지, 남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쓰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홀로 쓰고 습작하는 거지요.

장시우 전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던데요. 자신의 재능을 알고 싶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자기가 재능 있는 일이라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글쓰기든 뭐든 좋아하지 않으면 일생을 다해 열정을 쏟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선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학교에 진학하셨잖아요? 왜 교사가 되고 싶었나요?

임교순 작가 그때는 집이 가난하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집이 가난했으니까. 어머니가 산나물 뜯어다가 나물예다 쌀은 드문 드문 들어 있는 걸 된장하고 섞어서 먹었어요. 나는 산나물을 먹고 자란 거지요. 그런데 선생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학교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은 보기에다 참 멋이 있고 뭘 많이 알고 또 신성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선생님을 존경하다 보니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지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담임이었던 영어 선생님이 ‘너는 고등학교 가지 말고 사범학교에 가라. 너 같은 애들은 선생님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면서 사범학교 원서까지 사다 주셨어요. 그 시절에 집에 사범학교 간다고 했다가는 쫓겨날 판이었어요. 학비를 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을 때라 몰래 원서 써서 내고 친구 둘과 세 녀석이 몰래 춘천으로 갔어요. 그때는 횡성에서 춘천 버스가 하루에 두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군용차에 몰래 올라타고 가는 거죠. 타다가 떨어지면 깨지거나 다치고 그랬지요. 군인들도 사정을 아니까 알고도 묵인해 주는 거죠. 그렇게 면접 보고 사범학교에 갔어요. 그때 사범학교는 학생들에게 돈을 줬어요. 돈 받고 공부하고 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교사를 해야 했어요. 그때는 교사가 부족했으니까, 정부에서 돈 주고 가르친 거지요. 그때 교사는 월급이 형편없었지요. 보리쌀 땀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쌀이 적게 났으니까, 안남미라고 불렀던 월남 쌀하고 돈은 칫솔이나 사 쓰라고 주는 식으로 그렇게 적은 월급으로 먹고살았지요. 그렇게 선생을 해도 참 즐겁게 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애들을 가르친다는 선생이라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때는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깎듯했으니까요. 선생님이라 부를 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비록 몰래 사범학교 가서 선생이 되었어도 속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지요. 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에게 내 문학 정신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꿈을 지니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 중에는 요즘도 찾아오는 애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아이들이 왔다 갔어요. 선생님



손 글씨로 메모하며 꼼꼼하게 정리한 임교순 선생님 앨범. © 장시우

께 드릴 먹을 거 해온다고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녀석도 교사하다가 퇴직했어요. 그 제자 나이가 64살이나 됐어요. 선생님 소리도, 아동문학가도 듣기 좋았고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한 긍지를 갖고 문학하는 사람들과 강원도에 아동문학회를 만들었지요.

장시우 그랬지요. 선생님께서 그 강원아동문학회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원아동문학회는 언제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임교순 작가 내가 1971년에 강원아동문학회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회원이 80여 명 됐어요. 대체로 교사들이 많았죠. 거기서 하나둘 데뷔해서 이미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있고... 강릉 삼척에 ‘김진강’이라든지 강릉 ‘이연희’도 있었고... 아동문학의 역사가 강원아동문학의 역사하고 거의 같아요. 강원아동문학회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물론 나도 그렇지만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해요. 아니면 거짓말이고 자기 기만이지요. 처음에는 뜻을 가지고 아동문학을 하겠다는 사람은 등단 여부에 상관없이 그런 의지만 있으면 다 들어왔어요. 여름방학이 되면 삼척 고산 초등학교로 몰려갔는데, 거기 가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도 바닷가에서 별을 보고 저 별은 저렇게 작은 별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우리 눈에 비칠 때까지 수백억 광년을 그 달려온 그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빛은 수백억 광년 전에서 온 빛이라는 등 우주의 신비 같은 얘기도 하고 문학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때는 남녀 선생님들 모두 세미나 하고 그러면은 아주 좋아했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메인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르친 거지요.

장시우 그러면 강원아동문학회는 강원도 아동문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임교순 작가 그렇지요. 거기서 등단도 엄청 많이 했지요. 그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등단했고 어떤 사람들은 동시 쓰다가 시를 쓰기도 했고 그런데 동화는 소설로 못 가요. 그러니까 동화하고 소



앨범 속 임교순 선생님이 남기고 싶은 어느 순간. © 장시우

설은 장르가 완전히 달라서 장르의 벽이 있어요. 동시는 쉽고 많았고, 동화는 원고지 30매는 써야 하니까 어렵다고 잘 안 썼지만 자유분방하게 어린이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동화의 매력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장시우 그렇지요.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위한 글이긴 하지만 사실 0세부터 99세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도 아동문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동문학을 하거나 아동문학가가 되고 싶다는 후배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임교순 작가 그렇지요. 독자가 가장 많은 것이 아동문학이에요. 아동문학이든 문학은 자기 위치를 잘 잡아야 하고 작품도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요즘 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읽어도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독자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는데 자기만 알아요. 저만 아는 시를 써서는 안 되고 독자를 많이 거느리는 시를 써야 해요. 문학은 독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자가 매력을 느끼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특이한 거나 특색이 있어야지요. 나는 특히 아동문학에서 동화는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환상적이고 판타지를 사람이 있는 그대로만 봐서는 재미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생명체를 부여한다든지 언어를 부여한다든지 하면 자연과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어렵고 난해하게 하니까 읽지 않아요. 사람들은 시 한 줄을 읽어보다가 재미없으면 덮어버려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무관심하지요. 그런데도 자신은 시인이라고 우쭐대는 이런 풍토가 조심스러워요. 나는 후배들에게 아주 쉬운 글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글을 쓰라고 해요. 당신의 지식을 전달하려면 문학하지 말고 논문을 쓰면 되잖아요. 문학은 한강처럼 해야 해요. 소설 채식주의자

는 음식 먹는 것처럼 쉽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중대성을 인식하게 해야지요. 먹는 거 말인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 살이 찐다고 하지요. 고기나 우유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악착스럽다고 할까? 잔인성이 늘어가요. 동물의 왕국을 늘 보는데 호랑이라는 놈은 그래서 밥만 먹고 늘 남의 피나 남의 고기나 먹을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악독하고 얼룩말이나 코끼리 이런 건 덩치는 큰데 이젠 순해 빠져서 풀만 뜯어 먹어도 저렇게 잘 살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 혼자서 호랑이 너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 되기에는 너무도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고 야단치곤 하지요. 우리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일찍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풀을 좋아해서 풀을 먹고 큰 동양 사람들은 비교적 다 순해요. 덩치가 그렇게 큰 소도 풀을 오석 오석 먹으면서 아무 불평 없이 그저 짐을 싣고 무거워도 참고 걷는 소를 보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과 동물하고 식물의 연대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한강이, 채식주의자가 이야기하는 채식 그런 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장시우 혼자 쓰고 혼자만 아는 문학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독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특별하고 특이한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이고 또 독자를 의식하면서 독자를 소중히 하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최근에 지역 신문을 보니까 방울꽃 문학상 제정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신 걸까요?

임교순 작가 그건 현재 강원아동문학회 회장이 '선생님 작품도 널리 알려져 있고 선생님이 강원아동문학회를 창립해서 강원도의 아동문학이 전국적으로 왕성하게 움직이게 하셨고, 서울에서 전국

아동문학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거의 강원아동문학회 출신이고 하니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임교순 아동문학상을 제정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문학상 준다는 건방을 떨기는 싫다. 그러나 내 작품 이름은 허용한다. 방울꽃이라고 하는 동요는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은 모르지만 내 이름은 절대 쓰지 마라. 그 속의 내용에는 들어가도 되지만 내 이름을 간판으로 무슨 문학상 그건 싫다. 앞으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길을 딱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름 내걸고 국회의원하려고 그러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 문학 정신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고, 신문에 따로 냈다고 해요. ‘신문에 보도해도 좋겠습니까?’라길래 하겠다고 하는 걸 자를 수 없고 너무 응고집을 써도 안 되겠다 싶어 돈을 마련할 길이 있으면 해 보라고 했지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신문 보도하기 전에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지요. 첫해에는 전국의 아동문학가들이 응모할 수 있으니까, 전국 아동문학가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상 주는 거니까 선생님께서 시상하면 좋겠다며 그래야 강원아동문학이 상당히 위상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시비 같은 것도 내가 세우겠다고 해서 한 게 없고 문학판도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에 필요해서 세울 때 허락은 받아요. 문학은 고고한 학처럼 해야지 문학가가 유지하면 안 돼요.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그 아주 환상적인 세계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으로 보여줘야 하지요.

장시우 선생님 요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임교순 작가 요즘은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노인들이 여러 군데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아파트 경로당마다 좀 문제

들이 있어요. 다 자기 의견을 내세워 다뤄서 이걸 통제하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아요. 우리 안식구가 먼저 회장을 해봤다고 날 보고 도와달라며 외부적인 사항들은 나 더러 해달라고 해서 돕다가 여기 경로당에서 많은 사람이 회장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서 노인회에서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임기가 4년간이에요. 내년 8월이면은 임기가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내 몸이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여하간 맡은 기간까지는 열심히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햇살 환한 선생님 자택 거실에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같은, 맑고 따뜻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오랜만에 참 좋은 어른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교순 선생님은 아동문학의 원로(元老)라고 불린다. 원로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분야에 오래 종사하여 나이와 공로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 길을 오래 걸어온 참 어른으로 같은 분야의 후배뿐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신없이 변하는 요즘 우리가 원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어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임교순 선생님은 어른으로 불리며 현명한 말씀, 덕담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고 그저 존재만으로 든든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어른이 아닐까? 그리고 선생님의 무게감에 관해 생각하니 크고 너른 그늘을 가진 거목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아동문학을 하는 작가들뿐 아니라 원주에서 아니 강원도 문학판에서 존경받는 어른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을, 자연을 통찰하는 깊은 눈길과 현명함으로 후배 작가들에게 또 동요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어른이 되어주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방울꽃 할아버지로 오래도록 그 자리를 푸르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글·사진 장시우, 원주문화정보 전문필진(시인·문화기획자)

방울꽃

임교순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쪼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산새들 몰래몰래 꺾어 갈래도
쪼로롱 소리날까 그냥 둥니다

산 바람 지나가다 건드리면은
쪼로롱 방울 소리 쏟아지겠다
산 노루 울음 소리 메아리치면
쪼로롱 방울 소리 쏟아지겠다



이슈and Issue



청소년이 발견한 원주의 가치, 지역의 미래를 열다 _서연남
역사적 전환점, 원주 연극의 도약을 기대하며 _주장석
원주! 옷칠의 성지이자 한국 칠(漆) 문화의 자존심 _김동환

이슈 & :

청소년과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성



청소년이 발견한 원주의 가치, 지역의 미래를 열다

#청소년문화교육 #퍼실리테이션 #부론중학교 #신림중학교 #진광고등학교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많지만, 난 청소년에게서 찾고 싶다. 청소년이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실행하는 경험은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경험이 쌓여 지역의 문화를 성장하게 하고 훗날 문화의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원주에서 2020년부터 청소년과 다양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주제성, 지역성, 연결성, 실천성이 문화와 접목했을 때 지역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짜여진 프로세스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끔은 미로 찾기처럼 막막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 해냈다는 만족도만큼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부론중학교, '중학생 언니 오빠가 찾아온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2022년 부론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마을을 이해하고 지역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법천사지와 거둔사지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우며 익숙했던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공간을 다시 보며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고,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마을 홍보와 봉사활동,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방문 프로그램 등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일임에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마을에 ‘뭐가 많다’는 한 학생의 소감은 지역을 어른들이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최종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졸업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찾아가 후배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종이접기를 하는 것이었다. 미로시장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까지 배웠다. 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해 연습까지 거친 후 부론어린이집과 부론초등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어린 후배들의 눈빛에 으쓱했다.

마을에서 늘 보던 언니 오빠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종이접기를 같이 하자 어린이집과 부론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또래 문화를 이해한 아이들의 눈높이 언어와 행동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마을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스위치였다.

마을의 아이들이 마을의 어린이를 키우는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제안했다. 지역의 청소년이 다시 지역의 다음 세대를 돌보는 선순환 구조에 가장 뿌듯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실천이 지역 공동체를 따뜻하게 연결하고,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울림을 전했던 2022년 여름이었다.

#신림중학교 '신림에 살면서 신림에 놀러 온 기분이다'

2023년 신림중학교 전교생 16명이 참여하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주제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시골의 작은 중학교 아이들의 단합력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신림의 자연, 눈, 맛집, 논밭 등 마을의 특징을 함께 정리하며 어릴 때부터 살아온 마을을 추억하기 시작했다. 이후 마을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제안하며 캠핑, 봉사활동, 벽화 그리기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마을 이장님과 함께 용소막성당, 신림역, 12월의 양조장 등을 직접 탐방하는 시간은 아이들이 10여 년 넘게 살고 있는 마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기회였다. 다녀온 뒤 학생회장 친구의 '신림에 살면서 신림에 놀러 온 기분이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한마디다.

학생들이 결정한 활동은 펜션, 계곡이 많아 휴식을 위해 신림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 '쉼터'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마을 곳곳의 쉼터를 조사한 뒤 각자가 생각하는 쉼터를 벽화로 표현하였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쉼터'의 이미지를 담아 학교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프로젝트였다. 학생들이 이야기한 쉼터는 학교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복도 끝, 친구의 집처럼 소소하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운동장 계단 벽화로 이어졌



부론중학교 학생이 부론어린이집 아이들과 종이접기를 하기 위한 색칠을 하고 있다. © 서연남



① 신림역에서 더 착한농장 조정치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학생들 ② 신림중학교 학생들은 마을의 키워드를 '쉼'으로 정하고 각자의 쉼 공간을 벽화로 그렸다. © 서연남



① 구래중학교 학생들이 원인동마을관리소 마을해설사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돈 뒤 대원방앗간에서 가래떡 뽑기를 체험하고 있다. ② 교대 진학이 꿈인 진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우산동에 대해 교육했다. 고등학생 선생님을 만난 초등학교들의 수업 참여율은 정말 높았다. © 서연남

으며, 학생들의 생각이 실제 공간 변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였다. 청소년이 지역과 학교를 단순히 주어진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의미를 부여하고 바뀌나갈 수 있는 주체임을 보여줬다. 16명의 전 교생이 한 반 친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을 보고 공동체의 힘을 느꼈던 시간이기도 하다. 익숙함 속에 숨어 있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중고등학교 동아리 ‘원주의 문화를 익히다’

원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원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중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사업인 ‘원주를 찾다’는 원주를 10개의 키워드로 나누고 총 60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근대문화유산찾기, 지역 축제 가 보기, 강원감영 답사, 원주 통닭 이야기, 박경리 선생님 옛집 해설 듣기 등 교실 밖에서 만나는 살아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원주에도 처음 듣는 이야기와 자랑할 만한 문화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거

창한 구호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무실동의 최고령 어르신을 통장님과 함께 만나 뵙고 40년이 넘는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 뽑는 것을 체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골목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체험거리, 먹거리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이색 프로그램이었다.

무엇보다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지역의 역사와 공간, 사람과 이야기를 직접 만나고 질문할 기회가 주어질 때 청소년은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발견했다. 청소년이 직접 견고, 만나고, 질문하고,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원주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도 함께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지역의 미래는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진광고등학교 ‘교사가 꿈인 고등학생, 초등학교 교단에 서다’

진광고등학교의 PARVUS 마을학교는 청소년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그 배움을 다시 지역 후배들과 나누는 시간이었다. 우산동을 주제로 한 이 수업은 우산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최한 것으로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지역 청소년이 마을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접 교육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진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역 어른과 주민들에게 우산동의 역사와 문화,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배우며 수업을 준비했고, 이를 우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했다. 교육대학교 입학이 꿈인 고등학생들은 교단 앞에서는 것만으로도 현장형 진로체험이었다. 아이들에게 단계전을 설명하고 직접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단지 내용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후배들의 반응을 통해 오히려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조정하기도 했다.

학교와 마을, 청소년과 후배, 주민과 교육이 연결된 이 사례는 지역 기반 교육의 시작이었고 마을문화를 청소년을 통해 어떻게 확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청소년은 지역의 현재를 움직이는 주체다. 원주 곳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익숙한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았고, 질문했으며, 직접 변화를 만들어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찾아가 후배들과 만났고, 학교 공간을 스스로 바꾸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다시 전하는 역할까지 해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청소년에게 배움의 현장이 되었고, 청소년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거창한 개발 계획이나 대규모 예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신이 사는 곳을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며,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일 때 가능하다.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경험하는 작은 실천은 가장 확실한 미래의 길잡이다. 오늘 마을을 걸으며 아이디어를 내는 학생들, 후배에게 지역 이야기를 들려주는 청소년들, 학교와 동네를 더 좋은 공간으로 바꾸려는 아이들의 손끝에서 원주의 미래는 시작되고 있다.

글·사진 서연남_원주문화정보 전문필진 (도서출판 이름 대표)

이슈 & :

강원연극제가 남긴 발자취와 원주 연극의 과제



역사적 전환점, 원주 연극의 도약을 기대하며

#제43회강원연극제 #치악예술관 #연극 #산악 #양상불연극연구회

제43회 강원연극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1998년 원주에서 처음 강원연극제가 개최되고, 2011년 전국연극제를 유치했던 경험을 되짚어볼 때, 이번 다섯 번째 원주 개최는 그 흐름을 다시 환기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번 연극제는 원주 연극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는 기준점이자,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극제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관객이었다. 원주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안목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이는 공연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완성도 높은 작품이 연일 매진을 기록한 것은 관객이 스스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좋은 작품은 관객이 먼저 알아보고 지지한다는 원칙이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관객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공연의 가치를 가늠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원주 연극계에 엄중한

질문을 던진다. 현재 원주 연극계는 분명한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 연극제 지원 예산만 보더라도 지역 간 격차는 뚜렷하다. 속초 4,050만 원, 춘천 4,000만 원, 강릉 2,000만 원에 비해 원주는 1,100만 원에 머물렀다. 재정적 한계는 제작 환경과 작품의 완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을 예산 부족에만 돌릴 수는 없다. 연극계 내부의 결속력, 창작에 대한 집요함, 예술적 긴장감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자성이 함께 요구된다.





제43회 강원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춘천여성문화예술단 마실의 '덴둥어미던, 그 오래된 이야기'와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최보경 배우. © 원주연극협회 제공

연극은 단순히 무대에 작품을 올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품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살아 있는 예술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씨어터컴퍼니 옷끼'의 행보는 의미 있는 사례다. 이들은 생존을 넘어 지역과의 관계 설정, 협력 구조 형성,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구축을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원주 연극계가 주목해야 할 방향이다.



① 금상을 수상한 원주 씨어터컴퍼니 옷끼의 '스트레스' ②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연기력이 돋보인 속초 극단 하늘천땅지의 'Proof' ③ 은상과 무대예술상, 연기상을 수상한 태백 극단 동그라미의 '막장의 봄'. © 원주연극협회 제공

춘천과 속초 연극계의 성장 또한 중요한 비교 지점이다. 춘천은 배우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강원도립극단을 중심으로 제작 역량을 끌어올리고, 체계적인 배우 양성과 시민 참여형 연극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문화프로덕션 도모의 '나도 배우다' 프로그램은 시민을 창작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냈으며, 춘천국제연극제의 교육 과정 역시 창작과 공연을 잇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속초는 인구 8만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대상,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등을 수차례 수상하며 뛰어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강원연극제에서도 3개의 극단이 작품을 출품하고 다양한 실험적 공연을 선보이

며 속초 연극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실력 있는 연출가와 연기력이 있는 전문 배우들이 두텁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이 지역 내 고등학교 연극반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이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뒤 다시 전문 배우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속초 연극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원주 연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시민을 관객에 머물게 하지 않고 창작의 주체로 확장시키는 구조,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육성 전략, 그리고 교육과 공연이 연결되는 실천 중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즉 지역 배우의 육성이다.

2027년은 강원 연극 탄생 65주년이자 극단 산

야 창단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강원 연극은 1962년 원주의 '양상불 연극연구회'에서 시작되었고, 1967년 12월 20일 원주문화원에서 창단된 '극단 산야'는 그 흐름을 이어온 상징적 존재이자 현존하는 극단이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원주 연극은 다시 도약해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제43회 강원연극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원주 연극인들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가 원주 연극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글·사진 주장석

원주문화정보 전문필진 (공연예술학박사)

사진 원주연극협회 제공

이슈 & :

옷칠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원주!

옷칠의 성지이자 한국 칠(漆) 문화의 자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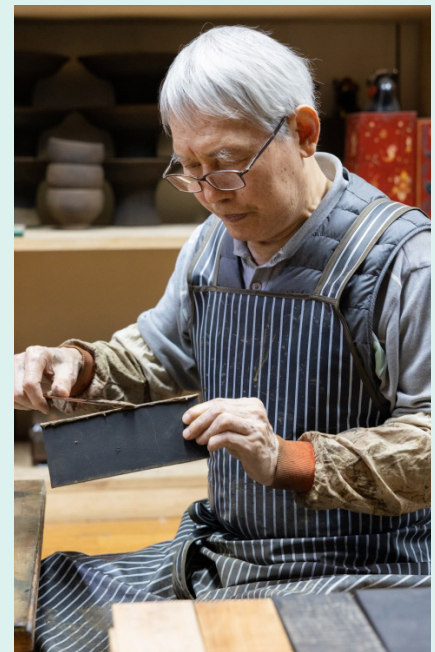
#옷칠 #옷칠공예 #원주칠공예주식회사 #원주옷문화센터 #인류무형문화유산



일사
김봉룡 선생



국가무형유산 나전장(줄음질)
이형만 선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채화칠장
양유전 선생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옷칠문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원주가 있다. 원주는 단순히 옷나무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수백 년 이상 칠액생산, 전통기술, 장인정신이 이어져 온 한국 칠(漆) 문화의 본고장이라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원주가 ‘옷칠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축적된 기술과 사람, 그리고 문화적 유산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부터 원주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옷 생산지였다. 특히 조선시대 강원감영(1395~1895)은 강원도 행정의 중심으로 옷과 관련한 칠장(漆匠)들의 활동 기반이 되었다. 단순한 천연 도료로만 보일 수 있지만 옷칠은 섬세한 기술과 땀이 응집된 결과물이다. 국가 운명과 왕실 문화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궁중 기물과 군수품, 불교 공예품, 목가

구 등에 사용되었으며, 내구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귀한 천연 물질이었고, 이것을 담당하며 다뤘던 칠장들은 전문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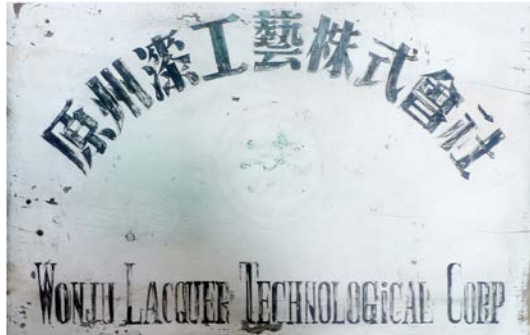
국가유산청 ‘옷칠보고서-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옷칠분정비율’에 따르면 강원감영에는 3명의 칠장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원주의 우수한 옷칠을 분정(分定) 비율에 맞추어 국가에 공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칠기 제작 문화를 발전시켰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옷칠은 도막이 튼튼하며 광택과 투명도가 뛰어나고, 색감이 깊으며 품질이 뛰어나 예로부터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전통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끊기지 않았고, 이러한 인프라로 전국의 칠(漆) 공예인들이 원주를 주목하였다.

칠(漆) 공예 장인들이 선택한 도시 원주

근·현대 들어서도 원주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일사 김봉룡 선생을 비롯한 칠공예 장인들이 원주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한국 칠예(漆藝)를 발전시켜 왔다. 이들이 원주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무엇보다 질 좋은 옷칠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었고, 역사 속에서 형성된 장인 공동체와 기술 전승 환경이 살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원주는 단순한 생산지가 아니라 옷칠문화 전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도시였다. 장인들은 서로의 기법을 나누고 후학을 길러내며 새로운 칠예 문화를 만들어갔다.

김봉룡 선생은 1925년 당시 23세 나이에 파리만국박람회에서 도자기에 나전칠기로 장식한 화병인 ‘청자당초문나전칠화병(도태칠기)’으로 은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김봉룡 선생을 비롯한 뛰어난 인재들이 원주로 입성하면서부터 한국 나전칠기의 예술적 품격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김봉룡 선생의 제자인 이형만(국가무형유산 나전장) 선생과 양유전(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채화칠장) 선생 또한 전통기법 보존과 후진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이들의 활동은 원주를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옷칠문화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57년 설립된 원주칠공예 주식회사 본관 건물, 국내 최초의 근현대적인 칠정제공장으로 원주칠공예가 시작된 기념비적인 장소이다.
© 원주역사박물관·원주투데이 제공

국내 유일 옷칠전문 민간기업 원주칠공예주식회사의 역할

이러한 기류 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이 바로 태장동 옛 원주칠공예 주식회사(1957~1978)였다. 칠정제장 박원동(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선생과 옷칠채취장인 박현석 선생은 원주칠공예주식회사를 “원주의 옷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옷칠 산업과 공예 문화를 발전시킨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옷칠 전문 민간기업”이라고 기억한다.

옛 원주칠공예주식회사는 공예부, 정제부, 페인트부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은 나전칠 공예품 제작, 108만 평 규모의 옷나무 조림 사업, 옷칠 채취, 옷칠 분석, 테레빈유 생산, 옷칠 정제, 페인트 생산이었다. 당시 칠공예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968년 장인(김봉룡, 심부길, 천상원)들과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를 졸업한 고학력 화학 전공자(김명국, 전인섭, 박원동)들을 초빙하여 전통공예의 전승과 옷칠의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개개인의 작업을 넘어 조직적 생산과 유통, 상품개발을 시도하는 등 원주 옷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도전적 민간기업이었다.

특히 고품격의 옷칠을 정제하여 최고 품질의 정제칠을 생산하였고, 당시 공예부장이었던 김봉룡 선생의 지도하에 전통 나전칠기를 전승하며 높은 수준의 나전칠공예품을 제작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전통문화가 시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옛 원주칠공예주식회사는 장인정신과 산업적 비전을 연결한 도전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원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옷칠 인프라를 갖춘 도시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옷문화센터 내에 수장고 전시실, 정제실, 공예교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나전장 박귀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선생을 비롯해 소속 장인들의 작업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장인 네트워크 및 현장 축제와 전시, 체험, 학술 활동까지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주 전체가 살아 있는 옷문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❶ ❷ 1968년 공예부 나전칠기 작업과 옷칠 채취 장인들의 칠여과 수집 작업. ❸ 1968년 시공관에서 열린 제1회 나전칠기 전시회 김봉룡 선생이 전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 박원동 제공

옷칠,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최근에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옷칠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6월 16일(화)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아시아 공유유산 옷칠의 전승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공예박물관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베트남 등 아시아 8개국이 참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각국 현황을 발표했다. 원주시와 남원시도 협력, 17일과 18일 양일간 전문가 워크숍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원주에서는 17일 오전 10시 옷칠 채취 시연과 체험교육을, 오후 1시에는 원주옷문화센터에서 분야별 장인들이 제자들과 직접 시연을 펼쳤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옷칠은 단순한 공예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시간이 결합된 친환경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화학 도료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도 천연 옷칠은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며 아름다움을 유지해 왔다.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가치가 중요해진 오늘날 칠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충분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원주는 최고품질의 옷칠이 생산되고, 뛰어난 장인들이 있으며, 오랜 역사와 기술 전승 체계가 살아 있다. 다시 말해 원주는 단순한 생산지가 아니라 한국 옷칠문화의 정신과 철학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빠르고 소비적인 시대 속에서 옷칠은 우리에게 기다림과 정성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단순해 보이지만 섬세한 기술력과 땀으로 만들어지는 칠액 생산, 그리고 수십 번의 칠과 건조, 연마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칠 공예는 인간의 인내와 혼이 담긴 예술이다.

원주의 옷칠문화는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며 한국 문화유산의 품격이다. 원주의 옷칠 문화를 단순한 지역 특산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자존심이며 세계 속에서도 경쟁력을 지닌 문화유산이다. 강원감영 칠장들로부터 현대의 장인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원주의 옷칠문화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문화의 힘이다.

원주가 옷칠문화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최고품질의 옷칠 생산, 뛰어난 장인, 살아 있는 역사, 그리고 이를 지켜온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가장 빛나는 이름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글 김동환_원주문화정보 전문필진, ((사)원주옷문화보존회 이사장)

사진 원주역사박물관·원주투데이·박원동 제공

게시처안내

<WART>는 원주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처 방문 또는 온라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WART>는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장소에 <WART>를 놓아두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원주문화재단 : 033-760-9843

****관내 주요 게시처**

원주시청

관내 행정복지센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원주교육문화관

원주역사박물관

